

三要諦 誠敬信에 대한 小考

高南植*

目次

- I. 序論
- II. 天地之誠과 人間
- III. 上帝의 超越性和 人間의 畏敬
- IV. 信관련 說話에서의 믿음
- V. 結論

I. 序論

성(誠)은 그 정의를 논리적으로 명확히 단정할 수 없는 개념이다. 잘 알려진 성(誠)과 관련된 내용은 『중용』에서 「성 자체는 하늘의 도요 그러한 성을 따라 정성스러울려고 노력하는 것은 인간의 도이다(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라고 한 부분이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정성 그 자체는 하늘의 도」라고 한 부분에서 천도(天道)를 규정하는데 다양한 내용이 있듯이 정성을 단적으로 의미짓는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그와 함께 『대순진리회 요람』에서 「성(誠): 도(道)가 곧 나요, 내가 곧 도(道)라는 경지에서 심령(心靈)을 통일(統一)하여 만화도제(萬化度濟)에 이바지 할지니 마음은 일신(一身)을 주관(主管)하며 전체를 통솔 이용하나니, 그러므로 일신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게 하는 것은 오직 마음에 있는 바라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것이니 정성(精誠)이란 늘 끊임이 없이 조밀(稠密)하고 틈과 쉼이 없이 오직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 대전대학교 대순종학과 교수

이름이다.』(요람 16쪽) 라고 하여, 정성을 <정성(精誠)이란 늘 끊임이 없이 조밀(稠密)하고 틈과 쉽이 없이 오직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라고 정의한 부분에 입각 인간에게 있어서 성(誠)의 의의와 가치를 찾아 보았다.

경(敬)은 『대순진리회 요람』에 심신의 움직임을 받아 일신(一身)상 예의에 알맞게 행하여 나아가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인간에게 있어 경은 초월적 존재에 대한 외경과 경배에서 나오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지성봉축(至誠奉祝)에 변함이 없고 양면이 없어야 경(敬)」이라는 내용은 이점을 보여 준다. 상제가 나타낸 권능은 인간에게 공경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였고 이러한 공경심을 토대로 신앙적 기틀이 형성되었다.

상제의 초월성은 혼란한 상황속에서 질곡당하는 당시 민중들에게 희망의 징표가 되었다. 민중의 곁에서 숨쉬며 절대성을 발현하는 상제는 경외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그들은 동학에서 상처받고 외세에 의해 유린당한 아픔을 초월성을 보여주는 상제의 이적(異蹟)에서 위로 받았으며 상제를 자신들을 구제해 줄 영웅(英雄)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상제는 몸소 민중들에게 뛰어 들어 초월성을 보이고 광구천하의 대업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갔으며, 상제의 초월성을 곁에서 지켜 보며 형성된 총도들의 자연스러운 공경심 그것은 원초적 신앙심의 표현이었다.

믿음은 종교 수행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요목이며 신앙의 근본이 되는 요소이다. 그런데 믿음은 정량화 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그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기란 어려우며 각 종교마다 믿음의 본질적 정서는 같겠지만 그 깊이와 차원은 다르다 할 수 있다. 대순사상에 있어 상제(上帝)는 강세(降世)이전부터 신계(神界)의 절대적 존재로 위치해 온 신성(神聖)한 위상을 가진 믿음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상제는 신계의 신성 불 보살들이 하소연하여 온 신적 존재들의 경배와 믿음의 자리에 위치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속에서 세상을 구원해 줄 존재로서 인세(人世)에 강세하였다.

인세에서의 천지공사(天地公事: 1901-1909)를 통해 상제는 천지인(天地人) 삼계(三界)에 대한 권능(權能)과 예지(叡智)를 나타냈으며, 각종의 치병(治病)을 이루어 민중들의 신앙의 대상으로 존송(尊崇)되었다. 민중들에게 믿음의 정서를 주는 인물로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그들에

게 열어준 것이다.

삼요체인 성경신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 보는데 있어 이 글은 성과 연관된 주요 구절로서 「천지 성경신(天地 誠敬信)」(교운 1장 66절, 현무경 20면)과 <복록수명 성경신(福祿壽命 誠敬信)>(교운 1장 30절)의 의미를 중심으로 『중용』의 성(誠) 관련 구절을 종합해 성의 의미를 찾아 보았다. 경에 있어서는 상제의 초월성과 그를 통해 종도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종교 경험을 경과 관련 서술한 것이다. 신에 대해서는 『전경(典經)』에 등장하는 상제가 인용한 믿음과 관련된 설화를 중심으로 그 속에 비유적으로 담겨 있는 믿음의 본질을 살펴 본 후, 상제의 실제적 행적과 말씀 안에서 상제의 권능을 통해 민중들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이것이 믿음의 형성에 한 기저를 이루고 있음을 고찰한 것이다.¹⁾

II. 天地之誠과 人間

본장에서는 천지인(天地人) 삼계(三界)에서 성(誠)의 가치를 살펴보기로 한다.

「천지 성경신(天地 誠敬信)」은 천지가 성경신의 원리하에 운행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천지 성경신(天地 誠敬信)」에서 성(誠)의 의미는 『중용(中庸)』에서 『성은 하늘의 도이다(誠者 天之道也)』라고 한 것 보다 확장된 지계(地界)까지를 포함한 우주적인 개념이며, 나아가 성(誠)만이 아니라 경(敬)과 신(信)의 차원까지 내포한 절대적인 우주의 운행을 지칭하고 있다.

이것은 대순사상에서 강조되고 있는 천지인(天地人) 삼계(三界)라는 우주관과 관련된 것이고, 인간을 둘러싼 천지가 성경신(誠敬信)으로 움직인다는 좀더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천지 성경신(天地 誠敬信)에서 경과 신에 대해서 보면, 경(敬)은 사강령에서 경천(敬天)이라는 의미로 나타나 상제에 대한 공경으로부터 경(敬)사상이 시작됨을 보이고 있다.

1) 이 글은 「대순사상논총」 9,10,11집에 수록된 誠敬信 관련 논문을 수정 요약한 것임을 밝혀둔다.

또한 신(信)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믿음을 나에게 주어야 나의 믿음을 받으리라』(교법 1장 5절) 고 하여 인간의 상제에 대한 선행적(先行的) 믿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나를 믿고 마음을 정직히 하는 자는 하늘도 두려워 하느니라』(교법 2장 7절) 는 내용에서는 하늘을 포함 삼계대권을 주재하는 상제에 대한 믿음의 절대성을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흑한 추위속에서도 하늘을 믿으면 죽지 않는다(呼寒信天 唯不死)는 비유로도 드러나고 있다.

한편 천지 성경신(天地 誠敬信)에서 『천지에 신명이 가득차 있으니 비록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를 것이며 흙 바른벽이라도 신이 옮겨가면 무너지나니라.』(교법 3장 2절) 는 내용을 생각할 때 천지와 신(神)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구절에서 『천지는 망량이 주장하고 일월은 조왕이 주장하며 성신은 칠성이 주장이 된다(天地 魍魎主張 日月 竈王主張 星辰 七星主張)』(교운 1장 44절) 라고 한 부분은 신(神)의 작용으로 천지가 주장 운행되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천지 성경신에서 천지를 신(神)이 성경신(誠敬信)으로 운행시키는 것으로 바꾸어 말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천지 성경신(天地 誠敬信)은 신(神)이 성경신으로 천지를 움직이고 각종의 천지의 일을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여기에서 천과 지, 신과 인의 바람직한 관계는 『음양경(陰陽經)』에서 찾을 수 있다. 『전경』에 나오는 『음양경(陰陽經)』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이 정해지고 곤이 따른다. 건은 양이고, 곤은 음이다. 신이 있고 인간이 있다. 신은 음이고 인간은 양이다. 천지의 일은 모두 음양 중에 성공이 있다. 만물의 이치도 모두 이 음양중에 이루어진다. 천지는 음양으로써 변화하고 신과 인은 음양으로써 조화를 이룬다. 하늘은 땅의 감화가 없으면 그 뜻을 아래에 펼 수 없고 땅은 하늘의 공이 없으면 땅위에 펼칠 수 없다. 천지가 화합해야 만물을 창성하고 천지가 안정돼야 만상이 구비된다. 신은 사람이 없으면 후에 의탁할 곳이 없고, 사람은 신이 없으면 앞에서 이끌어 줄 대상이 없다. 신과 사람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신과 사람이 합쳐져야 모든 일이 만들어진다. 신명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은 신명을 세운다. 음양이 서로 합쳐지고 신과 사람이 서로 통한후에 하늘의 도가 이루어지고 땅의 도가 이루어진다. 신의 일이 이루어지고 사람의 일을 이루어진다. 사람의 일이 이루어지고 신의 일이

이루어진다. 신명 신명 천지의 모든 신명들이 아래로 살피 수찰하신다. (乾定坤順 乾陽坤陰 有神有人 神陰人陽 天地之事 皆是陰陽中有成 萬物之理 皆是陰陽中有遂 天地 以陰陽成變化 神人 以陰陽成造化 天無地化 無布於其下 地無天功 無成於其上 天地和 而萬物暢 天地安 而萬象具 神無人 後無託而所依 人無神 前無導而所依 神人和而萬事成 神人合而百工成 神明族人 人族神明 陰陽相合 神人相通然後 天道成 而地道成 神事成 而人事成 人事性 而神事成 神明神明 天地諸神明 下鑑垂察)(교운 2장 42절, <<음양경(陰陽經)>>)

위에서 귀신이 인간을 수찰한다는 내용은, 천지 성경신아래에서 인간적 차원에서 궁구해야될 점을 결국 신의 인간에 대한 관계에서 찾아야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상제의 귀신(鬼神)에 대한 평가는 『상제께서 “귀신은 진리에 지극하니 귀신과 함께 천지공사를 판단하노라”』 (교운 1장 19절) 라고 한 부분에서의 귀신이 진리에 지극하다는 내용과 통하는 것이다. 이점은 천지공사라는 새로운 우주적 질서하의 유토피아 건설은 진법으로 구현되는 진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 공사가 귀신에 의한다는 것은 신의 진리에 지극한 정성을 엿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각종의 천지공사와 신의 연관성속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신은 인간이 정한 약속에 따라 일을 이루게 한다. 아래의 떡을 찌는 아낙의 예에서 인간의 처음의 정성(精誠)이 풀어져 정해진 약속을 어기게 되자 떡이 익지않게된다. 한편 그 아낙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노력하게 되자 아낙의 정성이 신(神)에게 전해져 인사(人事)의 일이 다시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상제의 신성하심이 하운동(夏雲洞)에도 알려졌도다. 이 곳에 이선경(李善慶)이란 자의 빙모가 살고 있었도다. 상제께서 주인을 찾고 <그대의 아내가 사십구(四十九)일동안 정성을 드릴 수 있느냐를 잘 상의하라> 분부하시니라. 주인은 명을 받은 대로 아내와 상의하니 아내도 일찍부터 상제의 신성하심을 들은 바가 있어 굳게 결심하고 허락하니라. 상제께서 다시 주인에게 어김없는 다짐을 받게 하신 뒤에 공사를 보셨도다. 그 여인은 날마다 머리를 빗고 목욕재계한 뒤에 떡 한 시루씩 찌서 공사 일에 준비하니라. 이렇게 여러날을 거듭하니 아내가 심히 괴로와하여 불평을 품었도다. 이날 한 짐 나무를 다 때어도 떡이 익지 않아 아내가 매우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노라니 상제께서 주인을 불러 <그대 아

내는 성심이 풀려서 떡이 익지 않아 매우 걱정하고 있으니 내 앞에 와서 사과하게 하라. 나는 용서하고자 하나 신명들이 듣지 아니하는도다>고 이르시니라. 주인이 아내에게 이 분부를 전하니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사랑방에 나와 상제께 사과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시루를 열어보니 떡이 잘 익어 있었도다. 부인은 이로부터 한결같이 정성을 드려 사십구(四十九)일을 마치니 상제께서 친히 부엌에 들어가셔서 그 정성을 치하시므로 부인은 정성의 부족을 송구히 여기니 상제께서 부인을 위로하고 그대의 성심이 신명에게 사무쳤으니 오색 채운이 달을 끼고있는 그 증거를 보라고 하셨도다.(행록 1장 29절)

윗글은 일관성과 정성의 관계로 볼 수 있다. 두 번의 다짐을 한 아낙이 불평 불만 없이 일관된 노력을 기울인 것과 다시 자신을 반성하고 일관성을 보인 것이 정성이라 할 수 있다.

신의 인간에 대한 판단에서 정성이란 인간의 탐욕(貪慾), 편벽(偏僻), 사곡(私曲)함의 죄(罪)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모든 도덕은 성실이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개인의 윤리, 사회의 윤리, 정치의 윤리도 성실이 없이는 수행되지 않는다. 성실은 단순히 인간의 의지적인 행위이상의 하늘의 길이요 하늘의 율법이다. 인간의 도덕은 하늘의 율법에 뿌리하고 있다.(金吉換,1994:69)

또한 『중용』에서 『절대적 진실은 불멸이다. 광대하고 심원하기 때문에 초월적이고 이성적이다. 광대하고 심원함은 마치 땅과 같다. 그것이 초월적이고 이성적임은 마치 하늘과 같다. 무한한 영원, 그것은 곧 신(神) 그 자체이다.』(『중용』 25장) 라고 한 구절에서 신적 차원의 인간 성에대한 가치판단의 연결고리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의 인간에 대한 특정의 경계와 상벌은 『새 기운이 돌아 닥칠 때에 신명들이 불칼을 들고 죄 지은 것을 밝히려 할 때에 죄 지은 자는 정신을 잃으리라.』(교법 3장 5절) 는 내용에서처럼 신명시대(神明時代)의 시작과 함께 열려지는 적극적이고 활발한 윤리적 가치판단(價値判斷)의 새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천과 인 나아가 신의 관계를 성(誠)을 중심으로 타 유교관련 경전인 『중용(中庸)』에서 보기로 한다. 천(天)과 인(人)사이에는 성(誠)을 중심으로 하는 성인과 인간의 도가 존재함을 밝히고, 정성 그 자체인 것이 하늘이고 그것을 따라 정성스럽고자하는 노력을 인간이 가져야될 도(道)로 적고

있다.

정성이란 하늘의 도이다. 정성스러울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도이다.(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중용』)

위의 내용을 『중용』에서 찾아 본 것은 『전경(典經)』의 『천지 성경신(天地 誠敬信)』이라는 구절과 『성자 천지도야(誠者 天之道也)』의 내용이 서로 통하는 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도(中道)에 맞는 정성 그 자체를 성인(聖人)으로 보고 정성스러울려고 하는 것은 선(善)을 택해 굳게 지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인간에게 있어 필요한 노력은 널리 배우고 깊이 살펴서 묻고 신중히 생각하며 명철히 판단해서 독실히 행하는 일이 필요함을 중용은 보이고 있다.

정성이란 힘쓰지 않아도 적중하며 생각하지 않아도 얻게 돼 조용히 도에 적중하는 것이 성인과 같다. 정성스러울려고 하는 것은 선(善)을 택해 굳게 지키는 자이다. 넓게 배우고 살펴 묻고 신중히 생각하며 명철히 판단해 독실히 행하는 것이다.(誠者 不勉而中 不思而得 從容中道 聖人也 誠之者 擇善而固執之者也 博學之 審問之 慎思之 明辨之 篤行之)(<<중용(中庸)>>)

위에서 성지자(誠之者)에 대해서 「정성스러운 사람은 선을 택해서 고집하는 자이다.(誠之者 擇善而固執之者也)」라고 한 부분이 『전경』에 「서전서문(書傳 序文)을 많이 읽으면 도에 통한다」고 한 내용과 일련의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찾을 수 있다. 서전의 서문은 요순우탕(堯舜禹湯)그리고 문왕 무왕 주공(文王 武王 周公)의 심법(心法) 전수의 내용을 따라 인간이 정성으로 일관한 수행을 통해 완성의 경지인 도통(道通)에 이른다는 것이다.

『서전(書傳)』 서문(序文)의 내용은 마음의 근원이 도에 따라야되며 그 마음의 법으로 <정일집중(精一執中)>과 <건중건극(建中建極)>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삼황(二帝三皇)의 정치(政治)는 「도(道)」에 근본하고 「이제삼황(二帝三皇)의 도」는 「마음」에 근본을 두었으니 그 「마음」만 깨달으면, 그 「도(道)」와 「정치(政治)」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리라. 왜

그런가 하면, 「정일집중(精一 執中)」은 요순우(堯·舜·禹)가 주고 받은 「심법(心法)」이요, 「건중건극(建中 建極)」은 상탕(商湯)·주무(周武)가 서로 전한 「심법(心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덕(德)」이니, 「인(仁)」이니, 「경(敬)」이니, 「성(誠)」이니 하는 것은 말은 비록 다르지만 실상 그 이치는 하나이니, 그것은 모두 이 마음의 묘한 바탕을 밝히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천(天)을 말함에 있어서는 그 마음의 유래한 바를 엄숙하게 함이요, 민(民)을 말함에 있어서는 그 마음을 베푸는 대상에 대해서 삼가게 함이니(二帝三王之治 本於道 二帝三王之道 本於心 得其心 則道與治 固可得而言矣 何者 精一執中 堯舜禹相授之心法也. 建中建極 商湯周武相傳之心法也 曰德 曰仁 曰敬 曰誠 言雖 殊而理則 一 無非所以明此心之妙也. 至於言天則嚴其心之所自出 言民則謹其心之所由施)

서전 서문(書傳 序文)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요순우탕(堯舜禹湯)과 문왕(文王) 무왕(武王)의 심법(心法) 전수의 요점이 정일집중(精一執中)과 건중건극(建中建極)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부분에 대한 주자(朱子)의 해석을 『주자어류(朱子語類)』에서 찾아보면 앞의 『중용(中庸)』의 내용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은 문구들을 중심으로 풀이되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점은 『중용(中庸)』에서 강조한 인간 정성의 내용이 서전에 대한 주자의 설명에서 인간 심성(心性)과 행동의 선(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인심은 인육이다. 그러므로 위태롭고, 도심은 천리이다. 그러므로 정미하다. 오직 정밀해야 이르러 수 있고 한결같아야 지킬 수 있다. 이와같다면 바야흐로 능히 중(中)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은 극진한 것이다. 유정(惟精)은 정밀히 살펴서 난잡함이 없는 것이다. 유일(惟一)은 머리와 끝이 있어서 오로지 한결같은 것이다. 이것은 요순이래 전해진 것이어서 아직 다른 논의가 없이 앞서부터 이 말이 있었다. 성인의 심법(心法)도 이것을 바꾼 것이 아니다. 경전가운데 이 뜻이 극히 많다. 이른바 선(善)을 택해서 굳게 지키는 것에서 택선(擇善)은 유정(惟精)이 되고 고집(固執)은 곧 유일(惟一)이다. 또 박학지 심문지 근사지 명판지 같은 것은 모두 유정(惟精)이고 독행은 바로 유일(惟一)이다. 또 명선(明善)같은 것은 바로 유정(惟精)이고 성지(誠之)는 바로 유일(惟一)이다. 대학에서 치지 격물이 유정(惟精)이 아니라면 불가능하고 성의(誠意)는 곧 유일(惟一)이다. 배움이란 바로 이 도리를 배우는 것이다. 맹자 이후 그 전해지는 것을 잃었다는 것은 역시 바로 이것을 잃은 것이다.

(중략) 정일집중의 설을 물으니 말하기를 유정(惟精)은 정밀히 살피는 것이 분명함이고 유일(惟一)은 행한 것들이 난잡하지 않은 것이며 집중(執中)은 잡아 지켜 잃지 않는 것이다.(程子曰 人心人欲 故危殆 道心天理 故精微 惟精以致之 惟一以守之 如此方能執中 此言盡之矣 惟精者 精審之而勿雜也 惟一者 有首有尾 專一也 此自堯舜以來所傳 未有他議論 先有此言 聖人心法 無以易此 經中此意極多 所謂 擇善而固執之 擇善 則惟精也 固執 則惟一也 又如 博學之 審問之 近思之 明辨之 皆惟精也 篤行 又是惟一也 又如明善 是惟精也 誠之 便是惟一也 大學 致知 格物 非惟精 不可能 誠意 則惟一矣 學則是學此道理 孟子以後失其傳 亦只是失此 (중략) 問精一執中之說 曰 惟精 是精察分明 惟一 是行處不雜 執中 是執守不失(朱子語類 卷 第七十八) (黎靖德, 1987:2014)

다음으로 성지자(誠之者)의 일면은 『서전서문(書傳 序文)을 많이 읽으면 도에 통하고 대학상장(大學 上章)을 되풀이 읽으면 활연 관통한다(교법 2장 26절)』에서 서전 서문과 함께 언급된 대학 상장에서 찾을 수 있다.

『대학(大學)』 상장(上章)의 내용은 대인이 되기 위해서는明明덕(明明德), 신민(新民), 지어지선(止於至善)과 성의(誠意) 정심(正心)의 마음가짐으로부터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로 나아가는 일련의 생활자세를 밝히고 있다.

대학의 도는 명덕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하며 지극한 선에 이르는 데 있다. 그칠 곳을 안연후에 정함이 있고 정함이 있는 연후에 능히 고요해지고 고요한 이후에 능히 안하며 안한 이후에 능히 사려가 있고 사려가 있는 연후에 능히 터득함이 있다. 물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일에는 처음과 마침이 있다. 선후를 안다면 도에 가깝다. 예날에 천하에 덕을 펴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가정을 다스리며 그 가정을 다스리려는 자는 먼저 몸을 닦고 그 몸을 닦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며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의지를 다스린다 하였다. 앎을 지극히 하는 것은 물상들을 격하는데 있다. 사물의 이치에 이른 뒤에 지식이 지극해지고 지식이 지극해진 뒤에 뜻이 성실해지고 뜻이 성실해진 뒤에 마음이 바르게 되고 마음이 바르게 된 뒤에 몸이 닦여지고 몸이 닦여진 뒤에 집안이 가지런해지고 집안이 가지런해진 뒤에 나라가 다스려지고 나라가 다스려진 뒤에 천하가 평해진다.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일체 모두 수신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 두터히 할 바에 얹게 하고 그 얹게 할 바에 두터히 할 자는 없다.(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至於至善 知止以後有定 定以後能靜 靜以後能安 安以後能慮 慮以後能得 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

即近道矣 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 先治其國 欲治其國者 先齊其家 欲齊其家者 先修其身 欲修其身者 先正其心 欲正其心者 先誠其意 欲誠其意者 先治其志 致知在格物 物格而后知至 知至而后意誠 意誠而后心正 心正而后身修 身修而后家齊 家齊而后國治 國治而后天下平 自天子 以至於庶人 壹是皆以修身爲本 其本亂而末治者 否矣 其所厚者 薄 其所薄者 厚 未之有也)(『大學』 章句)

그리고 위의 「대학」 상장을 많이 읽으면 활연관통(豁然貫通)한다고 하였는데, 이 활연관통은 대학의 전(傳)에서 물격(物格)과 치지(致知)를 해설한 <주자집주(朱子集註)>에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성의(誠意)가 격물치지(格物致知)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때 대학에서의 활연관통(豁然貫通)에 대한 내용은 정성과 관계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지식을 지극히함이 사물의 이치를 궁구함에 있다는 것은 나의 지식을 지극히 하고자하면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함에 있음을 말한 것이다. 인심의 영특함은 앎이 있지 앎이 없고 천하의 사물은 이치가 있지 앎이 없건마는 다만 이치에 대하여 궁구하지 앎이 있기 때문에 그 앎이 다하지 못함이 있는 것이다.이 때문에 대학에서 처음 가르칠때에 반드시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천하의 사물에 나아가서 그 이미 알고 있는 이치를 인하여 더욱 궁구해서 그 극에 이름을 구하지 앎이 없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힘쓰기를 오래해서 하루 아침에 활연히 관통함에 이르면 모든 사물의 표리와 정조가 이르지 앎이 없을 것이요. 내 마음의 전체와 대용이 밝지 앎이 없을 것이니 이것을 물격이라 이르며 이것을 지지지라 이른다.(所謂致知 在格物者 言欲致吾之知 在即物而窮其理也 蓋人心之靈 莫不有知 而天下之物 莫不有理 惟於理 惟未窮 故 其知有不盡也 是以 大學始教 必使學者 卽凡天下之物 莫不因其已知之理而益窮之 以求至乎其極 至於用力之久而一旦豁然貫通焉 則衆物之表裏精粗 無不到 而吾心之全體大用 無不明矣 此謂物格 此謂知之至也)(『大學』)

위에서 << 그 이미 알고 있는 이치를 인하여 더욱 궁구해서 그 극에 이름을 구하지 앎이 없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힘쓰기를 오래해서 하루 아침에 활연히 관통함에 이르면 모든 사물의 표리와 정조가 이르지 앎이 없을 것이요. 내 마음의 전체와 대용이 밝지 앎이 없을 것이니 이것을 물격이라 이르며 이것을 앎이 지극해진 것이라 이른다.(莫不因其已知之理而益窮之 以求至乎其極 至於用力之久而一旦豁然貫通焉 則衆物之表裏精粗 無不到 而吾心之全體大用 無不明矣 此謂物格 此謂知之至也)>>(『大學』)의 부분은

『전경』에서 「그 이미 아는 이치에 기인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스스로 열린다(因其已之知理而益窮之 自然心自開也)」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스스로 열리는 차원은 힘쓰기를 오래해서 하루 아침에 활연히 관통함에 이르면 모든 사물의 표리와 정조가 이르지 않음이 없을 것이요. 내 마음의 전체와 대응이 밝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이것을 물격(物格)이라 이르며 이것을 앎아 지극해진 것이라 이른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마음의 차원으로부터 성의와 정심 그리고 일심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는 것이다. 물격(物格)과 치지(致知)를 계속해서 힘써 나가는 정성이 없이는 활연관통의 차원과 일심의 근본이 세워질 수 없는 관계를 읽을 수 있다. 또 활연관통(豁然貫通)은 『대순진리회 요람』에서 영통(靈通) 도통(道通)에 이르는 인간의 차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경신(誠敬信) 삼법언(三法言)으로 수도(修道)의 요체(要諦)를 삼고 안심(安心 安身) 이율령(二律令)으로 수행(修行)의 훈전(訓典)을 삼아 삼강오륜(三綱五倫)을 근본으로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고 국법(國法)을 준수하여 사회도덕을 준행하고 무자기(無自欺)를 근본으로 하여 인간 본래의 청정한 본질로 환원토록 수심연성(修心煉性)하고 세기연질(洗氣煉質)하여 음양합덕(陰陽合德) 신인조화(神人調化) 해원상생(解冤相生) 도통진경(道通眞境)의 대순진리(大巡眞理)를 면이수지(勉而修之)하고 성지우성(誠之又誠)하여 도즉아(道卽我) 아즉도(我卽道)의 경지를 정각(正覺)하고 일단 활연관통(豁然貫通)하면 삼계를 투명하고 삼라만상의 곡진이 해에 무소불능(無所不能)하나니 이것이 영통(靈通)이며 도통(道通)인 것이다.(대순진리회 요람 9쪽)

다음으로 「성자 천지도야(誠者 天地道也)」 외에 『중용(中庸)』의 다른 부분에 나타나는 성(誠)에 대한 내용을 통해 성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정성으로 말미암아 밝아짐을 성(性)이라 이르고 명(明)으로 말미암아 정성스러워짐을 교(教)라 이르니 정성스러우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정성스러워진다.(自誠明 謂之性 自明性 謂之教 誠則明矣 明則誠矣)(『중용』)

이 부분에 대해 주자(朱子)는 집주(集註)에서 <성실하고 밝은 것을 성인의

덕으로서 하늘의 성품을 소유한 것이니 천도(天道)> 라 하였으며, <선(善)에 밝아진 후 배움을 통해 더 밝아는 것을 인도(人道)>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오직 천하에 지극히 정성이어야 능히 그 성(性)을 다할 수 있으니, 그 성(性)을 다하면 능히 사람의 성(性)을 다할 것이요 사람의 성(性)을 다하면 능히 물건의 성(性)을 다할 것이요 물건의 성을 다하면 천지의 화육(化育)을 도울 것이요 천지의 화육을 도우면 천지와 더불어 참여하게 될 것이다 (惟天下至誠 爲能盡其性 能盡其性則能盡人之性 能盡人之性則能盡物之性 能盡物之性則可以贊天地之化育 可以贊天地之化育則可以與天地參矣)>>(中庸 22章) 라는 의미는 <천명을 성(性)>이라 한 내용을 함께 생각할 때 성(性)은 정성을 통해 이르러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천지의 화육(化育)을 돕는 경지에서 천지와 함께 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중용』의 다른 장에서는 『성은 스스로 자기만을 이룰 뿐이 아니요 남을 이루어주니 자기를 이룸은 인이요 남을 이루어줌은 지이다.(誠者 非自成己而已也 所以成物也 成己 仁也 成物 智也 性之德也)』(『중용』 25장) 라고 하여 성(誠)을 인(仁)과 지(智)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지자(智者)가 천지와 같다는 전경에서의 지자에 대한 설명과 연관성을 갖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춘하추동(春夏秋冬)의 기(氣)를 소유한 인간으로 만사(萬事)를 임의대로 용사(用事)하는 경지인데 이것은 천지인(天地人)의 용사가 인간 마음에서 통제됨을 밝힌 부분과 통하는 것으로 인간 마음의 뒤틀린 정도를 따라 가능한 것이다.

<<전경(典經)>>에서는 지자(智者)의 차원을 세등급으로 구별해 천지 춘하추동(春夏秋冬)의 기운, 일월(日月)의 현망회삭(弦望晦朔) 이치, 귀신 길흉화복(吉凶禍福)의 도(道)로 보고 있다.

지혜는 천지와 함께 하고, 춘하추동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매사를 뜻대로 하며 이를 일러 지혜용력이라 한다. 큰 지혜는 천지와 함께 하고 춘하추동의 기운이 있다. 다음으로는 일월과 함께 하며 현, 망, 회, 삭의 이치가 있다. 또 다음으로는 귀신과 함께 하며 길흉화복의 도가 있다. (智者 與天地同 有春夏秋冬之氣 每事 任意用之 謂之智慧勇力 大智 與天

地同 有春夏秋冬之氣 其次 與日月同 有弦望晦朔之理 又其次 與鬼神同 有吉凶禍福之道.) (제생 43절)

지자(智者)의 세 등급은 『상제께서 말씀을 계속하시기를 “孔子는七十二 명만 통예시켰고 석가는 五백명을 통케 하였으나 도통을 얻지 못한 자는 다 원을 품었도다. 나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주리니 상재는 七일이요, 중재는 十四일이요, 하재는 二十一일이면 각기 성도하리니 상등은 만사를 임의로 행하게 되고 중등은 용사에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용사를 뜻대로 못하므로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느니라” 하셨도다.』 (교운 1장 47절) 라고한 내용에서 상등 중등 하등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것을 『중용(中庸)』에서는 『오직 천하의 지극한 성인이어야 능히 총명예지스려울수 있다(有天下之誠 爲能聰明叡智)』 (『中庸』) 라고 표현하고 있다. 나아가 천하지성(天下至誠)의 경지를 최고의 도달점으로 보고 있다.

오직 천하에 지극히 성실한 분이어야 능히 천하의 대경(大經)을 경륜(經綸)하며 천하의大本(大本)을 세우며 천지의 화육(化育)을 알 수 있으니 어찌 만 것에 의지할 곳이 있겠는가(唯天下至誠 爲能經綸天下之大經 入天下之大本 知天下之化育 夫焉有所倚) (『中庸』)

이러한 심신의 수행은 첫째 위에서 정일집중(精一執中) 건중건극(建中建極)의 해석에서 정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둘째로 도주 조정산이 선포한 「포유문(布喻文)」에서 인간에게 있어 지극한 보배가 심령(心靈)임을 밝히고 심령이 통해야 천지 귀신과 수작(酬酌)이 가능하고 만물과 더불어 질서를 찾을 수 있다는 내용과 연관성을 갖는 것이다.

『중용(中庸)』에서는 귀신(鬼神)에 대해 『귀신에게 질정(叱正)하여도 의심이 없음은 하늘을 아는 것이다(質諸鬼神 而無疑 知天)』 (『中庸』)라 하고, 물(物)에 대해에서는 <정성으로 물건이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물건의 마침과 시작이니 정성이 아니면 사물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정성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誠者 物之終始 不誠 無物 是故 誠之爲貴)> (『中庸』 25장) 라고 적고 있다.

심령이 통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부단한 정성속에서 심령이 도에 이르러

천지의 화육을 돕고 천지와 더불어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의 <지자(智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신인(神人)>이 나타나는데 신인의 경지는 음양과 오행을 자유자재(自由自在)로 할 수 있는 차원이다.

모든 일은 음에서 일어나 양으로 펼쳐치니, 먼저 보이지 않는 것과 음을 살펴 밝음과 양을 보라, 매사에 먼저 시발하는 곳을 살펴야 한다. 모든 일은 음에서 일어나 양으로 드러나며, 양이 일어나면 음은 숨는다. 모름지기 먼저 음양을 살펴야 한다. 음양은 곧 물과 불이다. 매일 쓰는 사물과 기거동정이 이목구비(耳目口鼻)의 총명한 도리에 있다. 귀는 수에 속하고, 눈은 화에 속한다. 이목(耳目)이 명백해져야 만사를 알 수 있다. 물에서 불이 생기고, 불에서 물이 생하고, 금은 목을 생하고, 목은 금을 생한다. 쓰임을 알 수 있어야 바야흐로 신인이라 할 수 있다. 음이 쇠하면 양이 생하고, 양이 쇠하면 음이 생한다. 생쇄의 도는 음양에 있다. 사람이 가히 음과 양을 쓸 수 있는 연후에야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萬事起於陰 以布陽 先察陰晦 以觀陽明 每事先觀始發處 陰起事而陽明 陽起事而陰匿 要須先察陰陽 陰陽則水火而已 日用事物起居動靜 在於耳目口鼻 聰明道理 耳屬水 目屬火 明白然後萬事可知 水生於火 火生於水 金生於木 木生於金 其用可知然後 方可謂神人也 陰殺陽生 陽殺陰生 生殺之道 在於陰陽 人可用陰陽然後 方可謂人生也)(제생 43절)

그런데 성경신은 신적 존재와 관련되어 주문을 통해 인간과 매개되는 점을 볼 수 있다.

복록성경신 수명성경신 지기금지원위대강(福祿誠敬信 壽命誠敬信 至氣今至願爲大降)(교운 1장 30절)

주우영가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위대강 주우수명 천지성경신(宙宇詠歌 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 至氣今至願爲大降 宙宇壽命 天地誠敬信)(《玄武經》 20면)

위에서 주문 <지기금지 원위대강>이 <복록성경신(福祿誠敬信) 수명성경신(壽命誠敬信)>(교운 1장 30절) <주우수명 천지성경신(宙宇壽命 天地誠敬信)>(《玄武經》 20면) 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찾을 수 있다. <지기금지 원위대강>은 최제우와 조정산이 상제에게서 받은 주문의 일부이다. 또한 경천 수도를 설명한 부분에서 상제에 대한 정성임을 찾을 수 있다.

<경천(敬天)>:

모든 행동(行動)에 조심(操心)하여 상제님(上帝任) 받드는 마음을 자나 깨나 잊지 말고 항상 상제께서 가까이 계심을 마음 속에 새겨 두고 공경(恭敬)하고 정성(精誠)을 다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수도(修道)>:

마음과 몸을 침착(沈着)하고 잠심(潛心)하여 상제님(上帝任)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정신(精神)을 모아서 단전(丹田)에 연마(鍊磨)하여 영통(靈通)의 통일(統一)을 목적(目的)으로 공경(恭敬)하고 정성(精誠)을 다하는 일념(一念)을 스스로 생각하여 끊임없이 잊지 않고 지성(至誠)으로 봉축(奉祝)하여야 한다. (대순진리회 요람 15-16)

인간이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늘 법리에 맞게 하여 상제의 가르침에 따르도록 수행해서 영통을 이루는 일이 경천과 수도의 주요 내용이라는 것은, 믿음의 조목인 삼요체의 하나인 성의 근원이 상제에게 귀착됨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복록과 수명은 도통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도통에는 인간의 부단한 성경신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복록 성경신(福祿 誠敬信)』 즉 복록과 수명이 성경신에 있다는 것은 복록 수명을 받는 것이 도통이므로 도통에 인간 성경신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해석해 도통과 관련된 내용들은 성경신과 관계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더욱이 성경신(誠敬信)이 추상적 개념이므로 본장에서는 이러한 개괄성속에서 도통과 성경신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 보기로 한다.

인간 복록과 수명이 성경신에 있다는 내용을 앞에서 언급한 천지 성경신이라는 부분과 함께 볼 때 인간이 성경신으로 운행되는 천지의 법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찾을 수 있다. 또 이것은 앞장에서 천지에 신명이 가득하다는 내용을 생각할 때, 천지 신명이 일정한 기준을 따라 인간 성경신의 정도를 수찰 판단해 복록과 수명을 인간에게 내려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들의 성경신에 따른 도통의 평가는 신(神)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우가 어느날 상제를 찾아 뵈옵고 도통을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니라. 상제께서 이 청을 꾸짖고 가라사대 “각 姓의 선령신이 한 명씩 천상 공정에 참여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이제 만일 한 사람에게 도통을 베풀

풀면 모든 선령신들이 모여 편벽됨을 힐난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사정을 볼 수 없도다. 도통은 이후 가기 님은 바에 따라 열리리라” 하셨도다.(교운 1장 33절)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일러주면 되려니와 도통 될 때에는 유 불 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님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라고 상제께서 말씀하셨도다.(교운 1장 41절)

상제께서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서신(西神)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벽이니라. 만물이 가을 바람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숙도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신의 위엄을 떨쳐 불의를 숙청하기도 하며 혹은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구하는 자와 삶을 구하는 자는 힘쓸 지어다.”라고 말씀하셨도다.(예시30절)

위에서 << 각기 님은 바에 따라,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는 내용은 인간 각자의 성경신(誠敬信)의 차이에 따라 신의 평가가 결정됨을 보여준다.

또한 이것은 <<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일러주면 되려니와 도통 될 때에는 유 불 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님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교운 1장 41절) 는 구절에서 도통에 있어 유불선 도통신들이 도에 통하게 한다는 것은 신이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이 도통, 복록수명에 있어 중요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다.

신은 인간 마음을 매개로 하여 통하고 인간의 정성스런 일심에 따라 응하는 신의 차원이 다르게 된다.

또한 인간은 참된 성품을 찾아 정성을 지극히 함으로써 인간이 신과 같아지는 차원이 열리게 된다.

성(性)은 마음이 밝아져야 천품성을 깨닫는다(開心見性) 하였으니, 참된 성품을 살피서 허망한 일을 하지 않는(眞實無妄) 지성(至誠)에 이르면 신(神)과 같아지느니라 (대순지침 75쪽)

나아가 이것은 인간 정성의 나아갈 방향을 시사한다. 신이 인간의 복록

수명을 내려주는 데 있어 인간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어떠해야하는가를 생각할 때 복록 수명은 도통 곧 운수라는 의미와 통하고 인간의 자세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너희들에게 다 각기 운수를 정하였노니 잘 받아 누릴지어다. 만일 받지 못한자가 있으면 그것은 성심이 없는 까닭이니라.(교법 2장 37절)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운수는 열려도 자신이 감당치 못하면 본곳으로 되돌아 가기도 하고 혹시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기도 하리라. 잘 믿을지어다”고 경고하셨도다.(교법 2장 38절)

위의 내용은 운수 즉 복록 수명이 인간의 성심(誠心)과 관련되어 있는데 노력여하에 따라 그것을 받는 대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해준다. 운수를 받을 수 있는 정성의 일면은 중용에서

至誠은 無息이나 不息이면 오래고 오래면 징험이 나타나고, 징험이 나타나면 悠遠하고 悠遠하면 博厚하고 博厚하면 高明하다(至誠無息 不息則久 久則徵 徵則悠遠 悠遠則博厚 博厚則高明)(中庸 26章)

오직 천하에 지극히 성실한 분이어야 능히 천하의 대경을 경륜하며, 천하의 대본을 세우며, 천지의 화육을 알 수 있으니, 어찌 만 것에 의지할 것이 있겠는가(唯天下至誠 爲能經綸天下之大經 立天下之大本 知天地之化育 夫焉有所倚)(中庸 26章)

라고 하여 지극한 정성을 강조하고, 그러한 경지에 있는 인물이 천하의 대본과 대자연의 화육을 이룰수 있는 차원으로 설명한 부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제 몇가지 종교적 수행과 관련된 서적을 통해 삼요체내에서 정성의 뜻을 보기로 한다. 대순사상에서 복록과 수명은 인간의 도통, 운수와 관계되어 궁극적으로 인간이 불노불사(不老不死) 무병장수(無病長壽)의 수명속에 영원한 복록을 얻는 것이다.

먼저 성경신은 복록 수명의 요체로서 성경신의 정의를 통해 그 의미를 찾아 보면 아래와 같다.

성과 경과 신은 모두 인간 마음 정신 작용에 근원하는 것으로 일상적이 아닌 어떠한 목적의식속에서 표출되는 좀더 적극적이고 강렬한 면을 보여주

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대순진리회 요람에서는 성경신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성(誠)>:

도(道)가 곧 나오, 내가 곧 도(道)라는境地에서 心靈을 統一하여 萬化度濟에 이바지 할지니 마음은 一身을 主管하며 全體를 統率 理用하나니, 그러므로 一身을 생각하고 念慮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게하는 것은 오직 마음에 있는 바라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것이니 精誠이란 늘 끊임이 없이 稠密하고 틈과 쉽이 없이 오직 不足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름이다.

<경(敬)>:

敬은 心身의 움직임을 받아 一身上 禮儀에 알맞게 行하여 나아가는 것을 敬이라 한다.

<신(信)>:

한마음을 定한 바엔 利益과 損害와 邪와 正과 便辟과 依支로써 바꾸어 고치고 變하여 옮기며 어긋나 差異가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하며 하나를 들이라 앎고 셋을 셋이라 앎고 저것을 이것이라 앎고 앞을 뒤라 안하며 萬古를 通하되 四時와 晝夜의 어김이 없는 것과 같이 하고 萬劫을 經過하되 江河와 山岳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이 하고 期約이 있어 이르는 것과 같이 하고 限度가 있어 定한 것과 같이 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며 精誠하고 또 精誠하여 企待한 바 目的에 到達케 하는 것을 信이란 한다. (대순진리회 요람 16쪽)

이러한 성(誠)에 대한 의미는 대순지침(大巡指針)에서는 몇가지 세분화된 설명으로 해석되어, 인간이 지성(至誠)으로 마음을 닦아 생활해 신(神)과 같아져 도통진경(道通眞境)에 이르는 일련의 내용들로 되어 있다.

성은 사람의 정기신의 합일의 진성이다.

천도의 운행이 차차이 없으므로 남이 모름에 궤의치 말아야한다.

불일이이의 본심인 인선(仁善)의 자성이 도성(道誠)의 정석(定石)이 되므로 성이 아니면 만물도 존재하지 못한다.

전경에 성을 지극히 하라 하셨으니 성의 소귀함을 깨달아 봉행하여야 한다.

도주님께서 먼저 나의 마음을 참답게 함으로써 남의 마음을 참답게 하고, 먼저 내몸을 공경함으로써 남도 몸을 공경하게 되며, 먼저 나의 일을 신의로써 하면 남들이 신의를 본받게 된다.(先誠吾心 以誠他心 先敬吾身 以敬他身 先信吾事 以信他事)(대순지침 70쪽)

성(性)은 마음이 밝아져야 천품성을 깨닫는다(開心見性) 하였으니, 참된 성품을 살피서 허망한 일을 하지 않는(眞實無妄) 지성 至誠에 이르면 신 神과 같아 지느니라 (대순지침 75쪽)

자고로 마음이 참되지 못하면 뜻이 참 답지 못하고, 뜻이 참되지 못하면 행동이 참 답지 못하고, 행동이 참되지 못하면 도통진경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心不誠 意不誠 意不誠 身不誠 身不誠 道不成)(대순지침 76쪽)

이러한 내용들은 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것이 자신을 완성시키고 타인을 감화시키며 인간이 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중요한 요체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일면 증용의 주자집주(朱子集註)에서 < 성은 진실해 망령됨이 없는 것을 이른다. 천리의 본연이다. 생각하지 않아도 얻으니 얹어 나오며 힘쓰지 않아도 적중하니 행함에 편안함이 있다(誠者 眞實無妄之謂 天理之本然也... 不思而得 生知也 不勉而中 安行也)>(朱子集註) 라고 한 내용과 관련 되고, 증용 원문에서 성에 대해 도덕적 가치로서의 인간의 인과 지를 말한 부분과도 연결지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성은 스스로 자기만을 이룰 뿐이 아니요 남을 이루어주니 자기를 이룬은 인이요 남을 이루어준은 지이다.(誠者 非自成己而已也 所以成物也 成己 仁也 成物 智也 性之德也)(증용 25장)

Ⅲ. 上帝의 超越性和 人間의 畏敬

대순사상에서는 상제의 개념이 천을 포함한 우주를 삼계대권으로 주재해 삼계공사(천지공사)를 통해 기존 선천문제의 해결과 후천선경(後天仙境)이라는 이상세계를 열어준 신앙대상인 상제에게서 찾고 있다. 초월성 발현에 일반적 체계와 질서가 신도(神道)라는 용어로 요약되고, 신도를 통해 상징화되어 인간에게 나타남으로서 그들로 하여금 경외심을 일으키게 한다.

증산(상제)의 인격천이 지니는 위격은 최고신 상제로서 다양한 신들간의 관계속에 제신을 거느리는 자리에 있으며, 인간사회의 문제를 제시하고 그 자신의 권능으로서 인세에 강제하여 전체인류를 위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신이라 할 수 있다.(이경원,1998:128)

선후천 교체기에 있어 상극으로 야기된 원(冤)의 해소(解消), 상도(常道)의 회복(回復), 우주차원(宇宙次元)의 도법(道法)의 필요성(必要性)등에 신도가 천지공사의 근본 원리(原理)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천지공사란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행하여진 신명계와 인간계, 그리고 자연계의 기존 운행질서를 새롭게 개편하는 작업을 말한다. 또 도통진경(道通眞境)의 후천(後天) 천하일가(天下一家)에서 모든 통일된 문화의 구현을 이루는 천지공사는 신도(神道)의 원리하에 도통신(道通神), 문명신(文明神), 명부(冥府) 주장신(主張神)등 신계 중추적 위치의 신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본래 상도(常道)로 있었던 신도의 권위추락(교운 1장 9절)을 해원(解冤)으로 회복시켜(공사1장 3절) 후천의 신계질서로 조정해 새로운 도수에 따라 평천하(平天下)하는 것이다.

신도(神道)공사란 원한을 품고 죽은 신명들의 원한을 제거해 줌으로써 신명계의 평화와 그에 따른 인간계의 평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해원공사(解冤公事)> 와, 신명계에서 갈등을 나타내는 신명들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들을 새롭게 배치하는 <신명의 배치> 그리고 각 지방과 민족 및 문명에 따라 서로 이질성을 나타내는 신명들을 통일시키는 <통일신단의 구성> 등을 포함한다.(盧吉明.1994 改正增補版:433,435) 이처럼 인계와 신계는 「신사가 이루어지고 인사가 이루어진다. 인사가 이루어지고 신사가 이루어진다.(神事成而人事成 人事成而神事成)」(교운 2장 42절,陰陽經)는 내용처럼 상호 유기적이고 긴밀하다. 이상에서 살펴 본 신(神)과 삼계(三界)간의 질서는 신도의 원리가 되고 천지공사를 이루는 근본구조로 작용해 기존 상도(常道)의 회복과 후천 선경 건설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전지전능의 권능과 최고의 신격을 가진 상제를 중심으로 여러 높은 신들이 우주의 조화정부(造化政府)를 구성하고 그 정부 조직아래 백성에 해당하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여 신명계라는 영역을 구성하고 있고, 이 신명계는 항상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계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대순종학 교재 연구회. 1998:122) 상제(上帝)는 천지공사를 행할 때마다 모든 신명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천지의 모든 일을 논의하는 조화정부(造化政府)를 결성하였다고 한다. 여기에서의 조화정부란 천지 안에 있는 모든 신명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변되게 회의를 하고 결정하며, 그것을

집행하는 우주의 원동기관(原動機關)으로서 <통일신단>의 결성을 의미하며 모든 신명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자신의 권능으로 신명들을 불러 모았다.(盧吉明.1994 改正增補版 :433)

이처럼 신도는 신을 매개로 천지인과 연계되어 상제에 의해 주재되는 질서이고, 천을 공경한다는 경천에서 천과 삼계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신이 상제에 귀속되어 상제의 천명에 의해 움직이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 신조(信條)등을 근간으로 이루어지는 수도의 요점을 담고 있는 대순진리회 요람에서도 『수도는 심신(心身)을 침잠추밀(沈潛推密)하여 대월(大越)상제(上帝)의 영시(永侍)의 정신을 단전(丹田)에 연마(鍊磨)하여 영통(靈通)의 통일(統一)을 목적으로 공경(恭敬)하고 정성(精誠)을 다하는 일념(一念)을 스스로 생각하여 끊임없이 잊지않고 지성(至誠)으로 봉축(奉祝)하여야 한다.』라고 적어 신조(信條)의 시작이 신앙의 대상인 상제에 대한 안주(安住)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위 내용은 신도의 주재자(主宰者)이고 삼계대권의 주재자이며 개벽장(開闢長)이 상제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인간 심신(心身)의 안(安)은 새질서인 신도에 따르는 것이고, 신도의 시원이 상제에 있으므로 결국 상제에 대한 성경신(誠敬信)으로 귀일(歸一)된다.(高南植. 1999 : 568-569) 이것은 경의 궁극적 대상이, 천은 물론이고 지계 인계 신계까지 삼계대권으로 관감만천(觀鑑萬天)하는 상제에게 있음을 나타낸다. 상제의 천지공사에서의 대권 행사는 삼계에 내재되어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선천의 다양한 문제들을 삼계대권으로서 해결하는 상제의 권능을 고찰함으로써 경의 궁극적 대상이 상제에게 귀착됨을 알아보기로 한다. 그 내용은 삼계를 통제하는 상제의 권능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천계 지계 인계대권으로 나누어 전경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그리고 천계 지계 인계에 대한 대권의 구분은 권능의 결과가 어느 계에 나타났는가보다는 소정의 목적을 이루기위해 권능이 직접적으로 용사된 계를 따라 분류하였다.

먼저 삼계대권은 천지인 삼계에 대한 상제의 권능으로 삼계대권의 용사는 앞장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신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상제의 신에 대한 용사

는 귀신이 진리에 지극하니 천지공사를 귀신과 함께 판단한다고 한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천지공사에 신을 부르기 위해 여러 가지 부호 글 그림 등이 사용되었다. 우사(雨師)라는 신을 불러 비를 내리기도하고 각종의 신들을 때에 따라 불러 삼계공사를 처결하였다. 이것은 신이 상제의 명으로 천지인에 작용하여 소정의 일을 이루게 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상제가 보여준 권능과 예지가 종도들로 하여금 외경(畏敬)을 일으키게 하였다. 종도들의 입장에서는 절대적 존재로서의 스승을 공경하는 종교적 체험을 하게 된다.

먼저 김형렬의 경우를 일례로 보기로 한다. 김형렬은 상제에 대한 소문이 주변에 널리 전해지게 되자 찾게 된다. 그가 상제를 따르게 된 것은 먼저 상제의 권능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때 이며 이것은 김형렬이 외경의 대상으로 상제를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해에 고부인(古阜人) 전봉준(全琫準)이 동학도를 모아 의병을 일으켜 시정(時政)에 반항하니 세상이 흉동되는지라. 이 때에 금구인 김형렬(金亨烈)이 상제의 성예를 듣고 찾아 뵈인 후 당시의 소란을 피하여 한적한 곳에 가서 함께 글 읽으시기를 청하므로 글방을 폐지하고 전주군(全州郡) 우림면(雨林面) 동곡(銅谷) 뒷산에 있는 학선암(學仙庵)으로 가셨으나 그 곳도 번잡하기에 다른 곳으로 떠나셨던 바 그 곳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도다.(행록 1장 21절)

형렬은 상제에 대한 경외심을 소문을 통해 어느 정도는 갖고 있었지만 상제를 따르던 초기에 직접 상제의 권능(權能)을 알고 싶은 마음에서 역사적 인물에 대한 일화를 이야기하여 상제의 권능을 몸소 경험하고 싶은 호기심을 보인다.

김형렬은 상제를 모시고 있던 어느날 상제께 진묵(震默)의 옛 일을 아뢰었도다. <전주부중(全州府中)에 한 가난한 아전이 진묵과 친한 사이로서 하루는 진묵에게 가난을 벗어나는 방법을 물으니 진묵이 사옥소리(司獄小吏)가 되라고 일러주니 아전은 이는 적은 직책이라 얻기가 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으나 그 후에 아전은 옥리가 되어 당시에 갇힌 관내의 부호들을 극력으로 보살펴주었나이다. 그들은 크게 감동하여 출옥한 후에 옥리에게 물자로써 보답하였다 하나이다. 그리고 진묵은 밤마다 북두칠성을 하나씩 그 빛을 가두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여 칠일만에 모두 숨겨버렸다 하나이다. 태사관(太史官)이 이 변은 하늘

이 재앙을 내리심이니 천하에 대사령을 내리시어 옥문을 열고 천의에 순종하사이다하고 조정에 아뢰오니 조정은 그것이 옳음을 아고 대사령을 내렸다 하나이다.> 이 말을 상제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그러하였으리라. 내가 이를 본받아 한달 동안 칠성을 숨겨서 세상 사람들의 발견을 시험하리라>하시고 그 날 밤부터 한달 동안 칠성을 다 숨기시니 세상에서 칠성을 발견하는 자가 없었도다.(행록 1장 31절)

김 형렬은 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상제를 모시고 있었도다. 그러던 어느 날 형렬이 상제의 말씀 끝에 전하는 말에 의하면 <송시열(宋 時烈)은 천지의 정기를 타고난 사람이고 그가 있는 주택의 지붕에는 백설이 쌓이지 못하고 녹는다 하나이나> 라고 아뢰니 상제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그러하라. 이제 나 있는 지붕을 살펴 보라>하시니라. 형렬이 밖에 나가 살펴보니 일기가 차고 백설이 쌓였는 데도 오직 계시는 그 지붕에 한 점의 눈도 없을 뿐아니라 맑은 기운이 하늘에 빠져 구름이 가리지 못하고 푸른 하늘에 까지 통하니라. 그후에도 살펴 보면 언제나 상제께서 머무시는 곳에 구름이 가리지 못하는도다.(행록 1장 36절)

천계대권과 관련해서 볼 때 진묵은 칠일을 걸러 북두칠성을 감췄으나 그 날 밤부터 한 달동안을 북두칠성을 감추는 상제의 권능과, 송시열의 주택에 백설이 쌓이지 못하는데 대해 상제가 계시는 곳은 백설에도 눈이 쌓이지 못하고 푸른 하늘에까지 맑은 기운이 통하는 것을 보고 형렬은 상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그것은 상제 권능에 대한 외경속에 나타나는 신앙심이라고 볼 수 있다. 상제가 김형렬에게 보여준 권능은 김형렬의 신심을 높이기엔 충분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계기를 통해 김형렬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상제에 대한 공경을 더해 나가게 된다.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 할 수 없는 가뭄에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할까. 물도량을 내고 하늘에 비는 일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 것이다.

상제께서 인사를 드리는 김갑칠(金甲七)에게 농사 형편을 물으시니 그는 “가뭄이 심하여 아직까지 모를 심지 못하여 민심이 매우 소란스럽나이다.”고 아뢰었도다. 상제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네가 비를 빌러 왔도다. 우사(雨師)를 너에게 붙여 보내리니 곧 돌아가되 도중에서 비가 내려도 몸을 피하지 말라”고 이르시니라. 갑칠은 발병 때문에 과히 좋아하지 아니하니라. 상제께서 눈치를 차리시고 “사람을 구제함에 있어서 어찌 일각을 지체하리오” 하시고 가기를 독촉하시니라. 갑칠이 서둘러 돌아가는 길에 원평에 이르러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도다. 잠깐사이에 하천이 창일하여 나무다리가 떠내려 가게 되니라. 행인들은 모두 단비라 일컬으면

서 기뻐하는도다. 흠족한 비에 모두들 단숨에 모를 심었도다.(행록 4장 31절)

김갑철은 가뭄을 해결할 방법으로 상제의 권능을 생각하고 상제를 찾게 된다. 이미 그가 온 이유를 알고 있는 상제 다시 김갑철의 마음에는 인간의 내면을 통찰하고 계신 상제에 대한 경외의 마음이 있게 된다. 그러나 김갑철은 발병에 비가 내려도 몸을 피하지 말라는 상제의 말씀에 주저한다. 병에 걸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한 망설임이다. 비를 내리는 일은 가뭄으로 농사일에 고통받는 민중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개인적 사정에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속히 민중을 구제하려는 상제의 마음에 대해 김갑철은 자신의 부족했던 마음을 돌아보게 되고, 상제의 명을 받은 자신의 행동으로 모를 심는 민중들을 바라보며 보람과 상제에 대한 공경을 더욱 깊이 새기게 된다.

이렇게 자연현상을 임의대로 주재하는 상제의 권능에 인간이 외경심을 갖게 되는 것은 비를 내리고 그치게 하는 일에서만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최 창조와 김 형렬의 집에서 뇌성을 일으키는 권능을 보이고 총재(蟲災)를 없애기 위해 뇌성을 일으켜 온 지역 사람들의 농작물을 잘 되게 하였다.

이처럼 농사일을 주재하는 일만이 아니라 상제에 의한 뇌성은 인간세상의 도와 천륜을 세우는 일로 쓰여져 죄를 응징하는 매개가 되기도 한다.

상제께서 이 곳에서 형렬을 만나 그를 데리시고 한산(韓山) 객주집에 좌정하시고 원일을 부르셨도다. 상제께서 원일에게 “술을 가져오라. 내가 오늘 벽력을 쓰리라” 하시니 그는 말씀에 좇아 술을 올렸더니 상제께서 잔을 받으시고 한참 동안 계시다가 술을 드시니 여태까지 맑았던 날씨가 갑자기 음풍이 일어나고 폭우가 쏟아지며 벽력이 크게 일어나니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태인에 유숙하는 사람이 많았도다. 상제께서 이 일에 대하여 형렬과 원일에게 설명하시기를 “내가 이제 아침에 객망리 주막 앞을 지날 때에 한 소부가 길가의 풀에 내린 이슬을 떨며 지나가기에 그 연유를 물으니 그 소부가 친정의 부음을 듣고 가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그 뒤를 한 노구가 지팡이를 짚고 가며 소부의 자취를 묻는도다. 내가 그 연유를 따져 물었더니 그 노구가 앞에 간 소부는 나의 며느리이나 가운이 불행하여 어제 밤에 자식을 잃었는데 며느리가 장사를 치루기 전에 오늘 새벽에 도망 갔나이다. 며느리는 저희끼리 좋아서 정한 작배이니라고 대답하더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들에게 “대저 부모가 정하여 준 배필은 인연이요, 저희끼리 작배한 것은 천연이라. 천연

을 무시하여 인도를 패하려 하니 어찌 천노를 받지 아니하라. 그러므로 오늘 내가 벽력으로써 응징하였노라”고 하셨도다. 그 며느리는 벽력에 죽었노라고 전하는도다.(행록 3장 36절)

위의 내용에서처럼 천연(天緣)으로 이루어진 천륜을 버리고 떠나가는 아낙을 응징하는 상제의 단호함에서 형렬과 원일이 느낀 감회는 천륜으로 세상의 질서를 다시 바로잡고자하는 상제의 의지에 대한 것이었으리라. 다른 경우에 있어 상제에 대한 무례(無禮)에도 크나큰 이해로 임하셨던 상제의 청천벽력 같은 처벌에 두 사람은 깊이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멀리해야겠다는 마음과 함께 윤리성에 대한 각성을 갖게 되었으며 지엄한 면모를 상제에게서 느꼈을 것이다.

자연계에 나타난 상제의 권능은 바람을 일으키는 초월성으로도 표출되었다. 바람을 일으키는데 있어 제갈량의 과거 예가 비유되고 바람으로 종도 김경학의 집 화재를 끄는 이적이 행해졌다.

이와 비슷한 예로 기후의 변화를 이용해 민요를 해결한 것은 자연 현상을 임의대로 제어하는 상제의 권능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제의 권능에 대한 외경심은 또 다른 심리적 정서를 갖게 해준다. 인간적 삶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간 세상을 초월해 자연계에 까지 미치는 권능으로 인간으로 실재하며 보여주는 능력이 세상을 초극한 계까지 작용한다는 점에서 인간들의 외경심이 절대적 차원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경지가 더 피부에 느끼도록 열리게 된다.

낮과 밤을 구분짓는 것이 일월(日月)의 운행이다. 다음에서 태양의 운행을 정지시키는 이적은 비를 내리고 바람을 일으키는 자연현상과는 다른 심정을 인간에게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와 일정한 운행 규칙 속에서 움직이는 행성을 멈추었다 움직이는 광경을 목격하고 생겨나는 감회는, 태양계의 질서를 언제나 새롭게 재 편성할 수 있는 위상으로서의 상제에 대한 경외심이며 난국을 능히 바로 잡을 수 있는 존재에 대한 기대와 공경의 심정이라 할 수 있다.

상제께서 약방에 계시던 겨울 어느날 이른 아침에 해가 앞산 봉우리에 반쯤 떠오르는 것을 보시고 종도들에게 말씀하시니라. “이제 난국에 제

하여 태양을 멈추는 권능을 갖지 못하고 어찌 세태를 안정시킬 뜻을 품으랴. 내 이제 시험하여 보리라” 하시고 담배를 물에 축여서 세 대를 연달아 피우시니 떠오르던 해가 산 머리를 솟지 못하는지라. 그리고 나서 상제께서 웃으며 담뱃대를 땅에 던지시니 그제야 멈췄던 해가 솟았도다.(권지 1장 27절)

자연계(自然界)의 운행이 상제의 행적을 따라 응하는 것을 보고 인간의 경외감이 일어나게 된다. 상제를 따라 시종을 들었던 박공우의 경험은 햇무리 달무리등이 나타나면 상제가 행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박공우에게 상제의 모습이 천지자연을 주재하는 분으로 인식되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속에서 그는 좀더 깊은 신앙심의 기저가 점차 형성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공우가 상제를 좇은 후로부터 순유에 자주 시종하였도다. 그는 어디서든지 머무시다가 다른 곳으로 떠나려 하실 때는 밤이면 달무리, 낮이면 햇무리가 나타나는 것을 증험하였으므로 언제든지 햇무리나 달무리만 나타나면 출입하실 줄 알고 먼저 신발과 행장을 단속하여 명을 기다리고 있노라면 반드시 불러 길을 떠나자 하셨도다. 대저 상제께서는 어디를 가시던지 미리 말씀하신 일이 없었도다.(권지 2장 4절)

치도령(治道領)은 도로를 다스리는 명령으로 신을 응하게 해 질거나 더러운 길을 다니기에 편한 길로 바꾸는 것이다.

상제께서 농암에 머무르시며 공사를 마치시고 그 곳을 떠나려 하실 때에 차경석이 와서 배알하고 “길이 질어서 한 걸음도 걷기 어렵나이다”고 아뢰는도다. 상제께서 양지에 “칙령도로신장 어제순창농암 이우정읍 대흥리(勅令道路神將 御在淳昌籠岩 移于井邑大興里)”라 쓰시고 물에 담궜다가 다시 끄집어내어 손으로 짜신 후에 화룻불에 사르시니라. 이때 갑자기 큰 비가 내리다가 그치고 남풍이 불더니 이튿날 땅이 굳어지는도다. 상제께서 새 신발을 신고 경석을 앞장 세우고 정읍에 가셨도다.(권지 1장 13절)

위의 예문에서 「길이 질어서 한 걸음도 걷기 어렵나이다」라고 말하는 차경석의 마음에는 길의 상태가 다니기 어렵다는 것과 함께 상제에게 사실을 알려 권능을 바라는 바람이 들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명에게 치도령(治道令)을 내리는 공사를 통해 땅을 굳게 해 다닐 수 있게 하는 상제의 권능

에 차경석은 공경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치도령 공사는 공사에 따르는 글을 써서 소지시켜 도로의 상태가 바뀌어지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 질은 상태의 길을 다스리기위해 먼저 비가 내려 길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글이 적힌 종이를 물에 적시는 것이고, 다시 젖은 종이를 화롯불에 사르는 것은 자연현상으로 남풍이 불어 길이 굳어지는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공사의 구조는 신비감과 함께 일련의 논리성을 갖고 종도들에게 다가가 상제에 대한 신앙심을 형성케 할 수 있다.

천계 자연현상의 주재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치도(治道) 공사만이 아니라 삼계 대권의 주재자인 상제는 선천에서 천(天)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하(卑下)되었던 지계에 대한 대권을 용사해 지계 해원을 시켰으며, 각종의 지계대권을 통해 상제의 위상을 종도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였다.

상제께서 무더운 여름 날에 신방축 공사를 보시고 지기를 뽑으셨도다. 종도들이 상제께서 쓰신 많은 글을 태인 신방축의 대장간에 가서 풍긋 불에 태웠나니라. 며칠 후에 상제께서 갑철을 전주 김 병욱에게 보내여 세상의 소문을 듣고 오게 하셨도다. 갑철이 병욱으로부터 일본 神戶에 큰 화재가 났다는 신문 보도를 듣고 돌아와서 그대로 상제께 아뢰이니 상제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일본의 지기가 강렬하므로 그 민족성이 탐욕과 침략성이 강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을 일삼느니라. 옛적부터 우리 나라는 그들의 침해를 받아왔노라. 이제 그 지기를 뽑아야 저희의 살림이 분주하게 되어 남을 넘보는 겨를이 없으리라. 그러면 이 강산도 편하고 저희도 편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전날 신방축 공사를 보았음은 神戶와 어음이 같음을 취함이었으니 이제 신호에 큰 불이 일어난 것은 앞으로 그 지기가 뽑힐 징조이로다”고 하셨도다.

김갑철은 앞에서 비를 내리는 일과도 관계된 종도이다. 위의 내용을 통해 볼 때 그는 지계 대권을 행하는 상제의 면모를 또 경험하는 인물이 된다. 일본이라는 외국과 관련된 공사가 갑철에게 더 큰 신비감과 경외심을 줄 수 있다. 일본 신호에 일어난 화재가 주는 공사의 의미가 한일간의 평화를 이루기위함이라는 의미에서 종도들은 상제의 세상 구원의 의지를 찾게 되고 상제의 평화애호의 뜻을 따르는 신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평화애호의 정신은 상제를 따르던 종도가 갖게된 잘못된 생각을

고쳐 올바른 공경심을 일으키게 된 내용에서도 볼 수 있다. 상제를 따르는 사람들이 상제의 사상을 바르게 이해해야 됨과 상제에 대한 공경이 잘못된 것이었을 때 올바름을 일깨워주는 상제의 권능을 꺾고 일어나는 마음의 뉘우침과 도덕적 심성은 인간존중(人間尊重)의 품성을 기르게 하고 상제에 대한 바른 공경심을 불러 일으키게 한다.

무신년 七월에 이르러 상제께서 원일을 이끄시고 부안 변산 우금암(遇金岩) 아래에 있는 개암사(開岩寺)에 가시니라. 그때 상제께서 원일에게 삶은 쇠머리 한개와 술 한 병과 청수 한 그릇을 방안에 차리고 쇠머리를 청수 앞에 진설하게 하신 후에 원일을 그 앞에 꿇어앉히고 성냥 세 개비를 그 청수에 넣으시니라. 이때 갑자기 풍우가 크게 일어나고 홍수가 창일하는도다. 상제께서 원일에게 “이제 청수 한 동이에 성냥 한 갑을 넣으면 천지가 수국(水國)이 될지니라. 개벽이란 이렇게 쉬우니 그리 알지어다. 만일 이것을 때가 이르기 전에 쓰면 재해만 끼칠 뿐이니 그렇게 믿고 기다리라”고 일러주시고 진설케 하신 것을 모두 거두니 곧 풍우가 그쳤도다. 상제께서 원일을 곧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도다. 원일이 집에 돌아와서 보니 자기 동생의 집이 폭우에 파괴되고 그 가족은 원일의 집에 피난하였도다. 원래 원일의 아우는 상제를 믿지 아니 하였으며 언제나 불평을 품었도다. 그러나 그는 이일을 당한 후부터 두려워서 무리한 언사를 함부로 쓰지 아니하였도다.(공사 2장 27,28절)

위의 개벽과 관련된 한 종도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게 된 일련의 일화는 종도들에게 개인적 욕심을 버리고 인류애의 정신이 있어야 됨을 강조한 것이다. 상제를 따르는 신앙이 올바로 열려야됨을 보인 것이다.

일련의 지계 대권은 일상의 삶 속에 민중과 같이 숨을 쉬는 땅에 대한 해원과 해원에 지기(地氣)의 영향이 중요함을 보임으로써 상제 사상에 대한 더 큰 호응과 접근을 가능케 했다고 할 수 있다.

선천에는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아니하였으되 이것은 지덕(地德)이 큰 것을 모름이라. 이 뒤로는 하늘과 땅이 일체로 받아들여야 하느니라.(교법 1장 62절)

이제 해원시대를 맞이 하였으니 땅도 버림을 받던 땅에 기운이 돌아오리라.(교법 1장 67절)

해원관련 지계대권(地界大權)에서는 지리(地理)와 관련 지기(地氣) 통일등

을 이루어 나가는 상제의 권능이 보인다. 지기통일 공사는 인계의 반목쟁투로 나타난 원을 없애고 나아가 삼계를 개벽(開闢)해 동학의 실패와 제국주의 세력의 침투 그리고 내부 정치의 혼란 등으로 방황하는 민중의 소망인 선경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일이며 신앙적 메시지가 새세상에 대한 동경심을 형성케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상제께서 가라사대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 쟁투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 하셨도다.(공사 3장 5절)

지기통일을 위해 조선을 중심으로 인간의 생활에 가족의 개념과 통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리키는 산을 택해 부모산의 정기를 뽑고 산하대운을 거두어 강산정기를 통일시켜 보편적 질서를 느끼게하는 종교심(宗教心)을 상제는 보여 주었다. 부모산(父母山)이라는 친근한 땅의 이미지 생활의 터전이며 생명의 본향인 자연도 부모로 귀착된다는 인간과 땅의 상합적 질서를 느끼게 해준다.

상제의 천지에 대한 권능을 겪고 생긴 공경이 다양한 인간사의 일들에서도 있게 된다. 이것은 병, 화난등의 인간고통을 해결해주는 면과 새로운 도수로 동서양 질서와 인간사회 조직기구등을 만드는 내용으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인간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내용은 생민의 생활구제, 인사(人事)의 각종 갈등의 해소, 병으로부터의 제생(濟生)등이 대표적이다. 또 새로운 질서의 확립은 무너진 상도의 회복을 통한 유도(有道)의 정착과 후천선경의 건설로 나타난다.

다음 내용은 상제에 대해 일상사에서 가질 수 있는 공경심을 몇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구원의 주재자로서의 외경의 마음은 종교심을 유발하고 일상에서의 안정과 삶에의 가치를 다시 세우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것은 자신의 생계인 채소 농사가 가뭄으로 망치게 된 상황에 처해 비를 내려 구제해주는 일을 보고 김성천이 상제에 대해 가진 마음이다.

계묘년 가을에 가뭄이 동곡(銅谷)에 계속되었도다. 김성천(金成天)은 동곡에서 밭을 부쳐 업으로 삼으니라. 그 나물밭에 가뭄 때문에 뜨물이 생겨 채소가 전멸케 되었는지라. 상제께서 그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죽을 사람에게 기운을 붙여 회생케 하는 것이 이 채소를 소생케 하는 것과 같으니라” 하시고 곧 비를 내리게 하셨도다. 그 후에 상제께서 출타하셨다가 얼마 후에 돌아오셔서 자현에게 “김 성천의 나물밭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시니라. 자현이 “지난 비로 소생되어 이 부근에서는 제일 잘 되었나이다”고 대답하였도다. “사람의 일도 이와 같아서 병든 자와 죽는 자에게 기운만 붙이면 일어나니라”고 말씀하셨도다.(행록 2장 22절)

조선조 말기 봉건체제하의 국가의 수탈로 가중한 세금과 부역에 시달리는 민중들의 일상에 바쁜 생활속에서 생업(生業)을 잠시 접어 두고 상제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안필성(安弼成)이 못자리를 하려고 뽕씨를 지고 집을 나서려는데 상제를 뵈었도다. 상제께서 “쉬었다 술이나 마시고 가라”고 말씀하셨으되 필성이 사양하는지라. “못자리를 내기에 바쁜 보양이니 내가 대신 못자리를 부어주리라” 하시고 지게 위에 있는 씨나락 서너말을 망개장이 밭에 다 부으셨도다. 그는 아무런 원망도 하지 못하고 앉아서 주시는 술을 마시면서도 근심하였도다. 주모가 들어와서 씨나락은 가지고 온 그릇에 그대로 있는 것을 알리는도다. 필성은 이상히 여겨 바깥에 나가 뿌려서 흩어졌던 씨나락이 한 알도 땅에 없고 그대로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을 보고 전보다 한층 더 상제를 경대하는도다.(행록 2장 24절)

그것도 농번기에 쉬었다 술이나 먹고 가라는 말씀에 대해 안필성이 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더욱이 씨나락을 밭에 뜻없이 뿌리는 상제에 대해 근심으로 아무 말도 못하는 안필성의 심정은 당시 사회의 어려움속에서 당장 농사를 망치지 않을까 하는 경제적 문제의 고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상제에 의해 뿌려졌던 씨나락이 다시 모여져 있는 불가사의한 상황하에서 상제의 말씀과 권능에 대한 안필성의 심경은 절대적 힘에 대한 경건(敬虔)한 복종으로 바뀌어 다음과 같은 친근감과 신앙심에 이르는 변화를 자연스럽게 보인다.

안 필성이 상제를 모시기를 기뻐하여 종종 음식을 대접하였도다. 어느날 그가 동곡(銅谷) 앞 팔거리에서 상제를 만나 대접하려고 하는지라. 상제께서 그 뜻을 알아차리시고 “내가 반찬을 마련하리라” 하시고 못을 휘

어서 낚시를 만들어 팔거리 근처에 있는 작은 응덩이에 던지시니 잉어와 가물치가 걸렸도다. 이것으로써 반찬을 만들어 잡수시면서 필성과 함께 한 때를 보내셨도다.(행록 4장 2절)

당시 민중들의 삶은 농사의 풍흉에 따라 희비가 달라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상제는 각종 일기변화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대권을 통해 인계 생민의 생활을 구제해 주었다. 이를 통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신앙심의 일단을 마음에 둘 수 있는 것이다.

아래와 같이 생민의 삶을 구제해주는 상제의 권능은 농사만이 아니라 상업에 종사하는 민중들에게도 베풀어졌다.

백남신의 친족인 백용안이 관부로부터 술도매의 경영권을 얻으므로써 전주 부중에 있는 수백개의 작은 주막이 폐지하게 되니라. 이 때 상제께서 용두치 김주보의 주막에서 그의 처가 가슴을 치면서 “다른 벌이는 없고 겨우 술장사하여 여러 식구가 살아왔는데 이제 이것마저 폐지되니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통곡하는 울분의 소리를 듣고 가엾게 여겨 종도들에게 이르시기를 “어찌 남장군만 있으랴. 여장군도 있도다.” 하시고 종이에 여장군이라 써서 불사르시니 그 아내가 갑자기 기운을 얻고 밖으로 뛰어나가 소리를 지르는도다. 순식간에 주모들이 모여 백용안의 집을 급습하니 형세가 험악하게 되니라. 이에 당황한 나머지 그는 주모들 앞에서 사과하고 도매 주점을 폐지할 것을 약속하니 주모들이 흩어졌도다. 용안은 곧 주점을 그만 두었도다.(권지 1장 17절)

위글은 소지(燒紙)로써 생민의 고통을 해결한 것으로 보수와 혁신의 대립 속에 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문물의 유입에 의한 경제 환경의 변화로 신분적 변동과 갈등하에서 당시의 문제를 극복한 내용이다. 김주보의 처가 처한 입장은 변화하는 경제 질서하에서 기존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된 것이다. 이러한 민중의 아픔을 가엾이 여겨 구제해 주는 상제 여기에는 여장군(女將軍)이라 하여 여성에 대한 평등과 신분상승의 의식까지 내포되어 있다. 김주보의 처가 현실을 통곡하며 표출하는 행동으로 생활의 터전을 다시 찾게 된다. 이것이 상제의 기운을 붙이는 공사로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주모들의 마음속에는 감사와 공경의 정서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인간의 무병장수(無病長壽)의 소망은 고래로부터 지속되어 온 것이다. 인간의 전생(前生)을 밝히고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 일을 당하여 상제에 대한

인간의 생각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후 어느날 금곡이 상제를 정중하게 시좌하더니 상제께 저의 일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청원하였도다. 상제께서 가라사대 “그대는 전생이 月光大師인 바 그 후신으로서 대원사에 오게 되었느니라. 그대가 할 일은 이 절을 중수하는 것이고 내가 그대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리니 九十세가 넘어서 입적하리라” 하시니라.(행록 2장 13절)

생사를 주재하는 대상에 대한 심경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근원의 신앙심을 불러 일으키는 일로 작용해 초월적 존재를 만난 극적인 공경심(恭敬心)을 불러 일으키게 할 수 있다.

인간이 죽음의 지경에서 살아난 경험을 하였을 때 그 심정이 어떠한 것인가는 형언할 수 없는 차원이다. 사지(死地)에서 살아난 자의 살려준 존재에 대한 감사와 경외의 심정을 보게 된다.

오월이 되어 상제께서 본택을 떠나셨으나 가신 곳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도다. 그리하여 매우 염려하는 상제의 부친을 보고 유덕안(俞德安)은 대신하여 상제를 찾으려고 의관을 갖추고 객망리를 떠났도다. 그가 태인(泰仁) 강심리에 이르렀을 때 관군은 의병 두 사람을 잡고 덕안을 동학군으로 몰고 포박하여 전주 용머리 고개 입시 형장으로 끌고 가니라. 두 사람이 먼저 참형되고 덕안의 차례가 되었을 찰나에 하늘이 캄캄하여지고 천둥치고 번개가 번쩍이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지라. 관군들은 지레 겁을 먹고 도망하였으나 비바람은 그치지 않고 밤은 깊어 사방이 보이지 않아 덕안이 정신을 차리니 두 사람의 시체만이 짙은 어둠 속에 텅굴어 있었도다. 무서움에 쫓겨 그는 먼 곳에서 비치는 등불을 향하여 지친 몸을 이끌어가니 날이 새기 시작하니라. 등불은 간데 온데 없는 산중이었도다. 그제서야 그는 정신을 차리고 포박을 풀고 재생의 기쁨을 안고 집에 돌아왔느니라. 그는 이 재생의 인도를 호랑이가 불빛을 비쳐 준 것으로 믿었도다. 얼마후 상제께서 객망리에 홀연히 돌아오셨도다. 상제께서 덕안을 보시고 <험한 시국에 위급한 환경을 당하여 고통이 많았도다> 말씀하며 위로 하시니 그는 더욱 자신의 재생을 상제의 덕화라고 굳게 믿으며 재생의 감격을 되새기니라. 당시는 가릴사이 없이 마구 죽이는 판국이었던도다.(행록 1장 26절)

죽을 상황에서 신이(神異)로운 자연 현상이 일어나고 그를 통해 살아난 유덕안에게 그가 겪은 일을 알고 말씀하시는 상제는 생명의 은인이며 자연 현상을 임의대로 조절해 어느 곳에 있더라도 화난(禍難)으로부터 자신을 구

원해줄 수 있는 경외의 대상이다. 호랑이가 집근처까지 인도해 살아난 것으로 혼란한 시대상속에서 정의를 세워나가는 상제의 모습은 올바른 세계를 꿈꾸는 종도들로 하여금 새로운 유토피아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한다.

상제께서 송광사(松廣寺)에 계실 때 중들이 상제를 무례하게 대하므로 상제께서 꾸짖으시기를 <산속에 모여 있는 이 요망한 무리들이 불법을 빙자하고 혹세무민하여 세간에 해독만 끼치고 있는 이 소굴을 뜯어버리리라> 하시고 법당 기둥을 잡아당기시니 한자나 물러나니 그제야 온 중들이 달려와서 백배 사죄하였도다. 그 뒤에 물러난 법당 기둥을 원상대로 회복하려고 여러번 수리하였으되 그 기둥은 꿈쩍하지 않더라고 전하는도다.(행록 1장 9절)

당시 동학군이 붕기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혼란한 현실에서도 종도들에게 앞을 내다보며 동학군이 실패할 것이라고 말한 상제를 따른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상제의 말대로 이루어진 결과를 보고 상제의 예지에 대해 외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전봉준(全 瑑準)이 학정(虐政)에 분개하여 동학도들을 모아 의병을 일으킨 후 더욱 세태는 흉동하여져 그들의 분노가 충천하여 그 기세는 날로 심해져가고 있었도다. 이 때에 상제께서 그 동학군들의 전도가 불리함을 알으시고 여름 어느날 <월흑안비고 선우야둔도 옥장경기축 대설만궁도(月黑雁飛高 單于夜遁逃 欲將輕騎逐 大雪滿弓刀)>의 글을 여러 사람에게 외워주시며 동학군이 눈이 내릴 시기에 이르러 실패할 것을 밝히시고 여러 사람에게 동학에 들지 말라고 권유하셨느니라. 과연 이 해 겨울에 동학군이 관군에게 패멸되고 상제의 말씀을 좇은 사람은 화를 면하였도다.(행록 1장 23절)

꿈을 통해 보았던 신계의 절대적 존재에 대한 만남이 현실에서 다시 일어난 상황에 대해 갖게되는 감회는 어떠할까.

금구 내주동을 떠나신 상제께서는 익산군 이리(裡里)를 거쳐 다음날 김일부(金 一夫)를 만나셨도다. 그는 당시 영가무도(詠歌舞蹈)의 교법을 문도에게 펼치고 있던 중 어느날 일부가 꿈을 꾸었도다. 한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일부에게 姜 士玉과 함께 玉京에 오르라는 天尊의 명하심을 전달하는도다. 그는 사자를 따라 사육과 함께 옥경에 올라가니라. 사자는 높이 솟은 주루금궐 요운전(曜雲殿)에 그들을 안내하고 천존

을 배알하게 하는도다. 천존이 상제께 광구천하의 뜻을 상찬하고 극진히 우대하는도다. 일부는 이 꿈을 꾸고 이상하게 생각하던 중 돌연히 상제의 방문을 맞이하게 되었도다. 일부는 상제께 요운(曜雲)이란 호를 드리고 공경하였도다.(행록 2장 2절)

꿈은 그저 가상의 무의식의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것인데 그러한 상식을 초탈한 일이 나타난 것에 대해 일부는 그가 꿈에서 보았던 궁전의 이름을 호로 써서 올린다.

이것은 꿈이라는 인간의 정신작용속에도 상제의 권능이 용사되고 있고 인간의 심리적 움직임까지도 인지해 내는 상제의 위상을 보여준다. 개인의 꿈을 통해 신계를 보여주거나 그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경우에 일어나는 마음의 동요는, 현실의 세상이 신의 세계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되며 한편으로 죽음과 미래를 보는 시각을 바꾸게 할 수도 있다.

상제께서 신경수의 집에서 공사를 보시고 계실 때 시좌하고 있던 원일에게 “네가 동천에 붉은 옷을 입고 구름 속에 앉은 사람에게 네 번 절한 일이 있었는데 기억이 있느냐”고 회상을 촉구하시더니 원일이 문득 깨닫고 일어나 상제께 네 번 절하니 옆에 앉아있던 종도들이 까닭을 모르고 물으니라. 그는 옷깃을 다시 여미고 정중히 앉아 이야기하되 “수년 전에 갑자기 병이 들어 사경에 빠져 정신이 황홀하여지는데 어떤 사람이 사인교를 타고 가다가 나를 보고 네가 새 옷으로 갈아 입고 문밖에 나가서 동쪽하늘을 바라보면 구름속에 붉은 옷을 입은 분이 앉아 계시리니 그 분에게 절을 사배하라. 그러면 너의 병이 나으리라고 이르기에 그대로 행하였더니 병이 곧 나왔다.”고 하니라.(권지 2장 28절)

종도 공우가 상제를 모시고 신경수의 집에 머물렀느니라. 공우는 밤에 잠자리에서 사람 수십명이 빛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상제가 계시는 문 밖의 뜰에서 배례하느니라. 이에 놀라서 공우는 상제의 등 뒤에 숨었도다. 아침에 상제께서 꿈이야기를 물으시거늘 공우가 그대로 아뢰니 다시 가라사대 “그들이 천상벽악사자(天上霹靂使者)이니라” 하셨도다.(권지 2장 3절)

화해(和解)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상제의 공사에서 평화를 이룩하려는 마음을 보고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심리는 어렵고 혼란한 시대상황속에서 새로운 믿음과 희망을 심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내부적으로 봉건적 규율의 붕괴와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속에서 나타난 갈등은 민족 내부에 일진회와

아전의 분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역사적 현실에서 상제가 보인 화해와 평화의 종교적 노력은 민중들에게 외경과 숭배의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일진회와 아전의 교쟁이 전주에서 갑진년 七월에 있었도다. 최창권(崔昌權)이란 사람이 부내의 아전을 모아 일진회 타도의 의병을 일으키고 자 각군 각면으로 통문을 보냈도다. 상제께서 이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 “어렵게 살아난 것이 또 죽겠으니 그들을 내가 제생하리라.” 상제께서 화정리의 李京五를 찾아 돈 칠십냥을 청구하시니 그가 돈이 없다고 거절하였도다. 부득히 다른 곳에서 돈 일곱냥을 구하여 가지시고 “이 돈이 능히 칠십냥을 대신하리라” 말씀하셨도다. 상제께서 형렬을 대동하시고 용머리 주막에 돌아오셔서 많은 사람을 청하여 술을 권하여 나누시고 난 후에 종이에 글을 쓰고 그 종이를 여러 쪽으로 찢어 노끈을 꼬아서 그 주막의 문 들쩌귀와 문고리에 연결하여 두시니라. 그날 오후에 아전과 일진회원 사이에 화해가 이룩되니 일진회원들이 사문을 열고 입성하니라. 이 일에 상제께서 소비하신 돈이 옛날이었도다. 가라사대 “고인은 바둑 한 점으로써 군병 백만명을 물리친다 하나 나는 돈 옛날으로써 아전과 일진회의 싸움을 말렸느니라” 하셨도다.

상제의 권능은 인간의 일상생활과 정신작용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세계정세와 관련된 면으로도 발현된다. 인계의 새로운 질서의 확립은 해원상생, 보은상생에 입각 과거사의 원을 풀고 세계질서에 상도(常道)를 회복해 지상천국(地上天國)의 세계를 구현하는 권능의 용사로 이루어진다.

조선 중심의 국수주의적 세계관이 아닌 일본과의 과거사와 현재의 공사를 논하는 일에서 세계사상으로서의 상제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갖는 인간의 심정은 상제의 천지공사가 당시 격동하는 국제정세속에서 조선이 가야될 길을 현명하게 찾게 하는 열쇠로 작용할 수 있다는 확신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일제의 침략적 정책과 서세동점(西勢東漸)의 급류속에서 국가의 안위를 내다보고 살길을 열어주는 아래의 내용들은 국가적 존망에 처해 있는 조선 민중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함께 상제에 대한 추종과 공경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이제 동양 형세가 위급함이 누란과 같아서 내가 붙잡지 아니하면 영원히 서양에 넘어가리라” 깊이 우려하시사 중도들에게 계묘년 여름에 “내

가·일로전쟁(日露戰爭)을 붙여 일본을 도와서 러시아를 물리치리라”고 말씀하셨도다.(예시 23절)

“이제 서양사람의 세력을 물리치고 동양을 붙잡음이 옳으니 대신문(大神門)을 열어 사십 구일을 한 도수로 하여 동남풍을 붙여 일으켜 서양 세력을 꺾으리라.”(예시 24절)

바람을 붙여 일으키는 일은 이미 천계대권(天界大權)에서 보았던 경우이다. 동양과 서양을 대비해 볼 때 당시의 현실은 서양의 열강과 문호 개방으로 이미 경제적 우위에 서 있던 일본이 발달된 문물과 침략무기로 약소국가와 한반도를 그들의 손아귀에 넣으려던 시기였다.

일본과의 임진란을 배경으로 한 과거사를 밝히고 조선의 당시 현실속에서 대비적으로 과거의 해원을 이룬다는 내용은 역사적 안목에서 상제 사상의 본질에 비추어 보아 큰 설득력을 얻는다. 초월적 지혜가 논리적 예시로 바뀌어 반항감도 일으킬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 더욱 깊은 종교심을 만들게 된다. 현실적 상황과 미래적 시점에서 상제를 따르던 사람들은 이 공사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며 신앙적 경외심을 형성시킬 수 있다.

IV. 信觀禪 설화에서의 믿음

믿음에 대한 중요성은 모든 종교가 예외없이 같지만 특징적으로 믿음의 본질은 종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점을 상제가 인용한 여동빈(呂洞賓) 설화속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나의 일은 여동빈(呂洞賓)의 일과 같으니라. 그가 인간의 인연을 찾아서 장생술을 전하려고 빗장사로 변장하고 거리에서 이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흰 머리가 검어지고 굽은 허리가 곧아지고 노구가 청춘이 되나니 이 빗 값은 천냥이로다고 외치니 듣는 사람마다 허황하다 하여 따르는 사람이 없기에 그가 스스로 한 노구에게 시험하여 보이니 과연 말과 같은 지라. 그제야 모든 사람이 서로 앞을 다투어 모여오니 승천하였느니라. (예시 61절)

위의 여동빈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1. 여동빈이 장생술을 전하려고 빗장사로 변장함
2. 여동빈이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노구가 청춘이 된다하고 빗 값을 천냥이라하니 허황된 말이라 하고 아무도 믿지 않음.
3. 이때 여동빈이 빗으로 노구에게 시험하니 그의 말대로 되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나 여동빈은 승천함.

위 내용은 여동빈의 말이 허황하다하여 믿는 이가 없었으나 진짜 그의 말대로 되어 사람들이 다투어 모이나 여동빈은 승천하였다는 것으로 믿음의 본질이 어떠한가를 보여 준다. 이 이야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믿음이란 선행적(先行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믿으라 했을 때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결과가 있기 전에 보이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결과를 보고 그때서야 나타내는 마음과 행동은 믿음에 있어 소용이 없음을 상제는 강조하고 있는데, 이점이 대순사상에서의 믿음의 본질로 중요함을 볼 수 있다.

때론 믿어야 할 내용이 비현실적이고 허황한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이때 보이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 된다는 것이다. 모든 종교는 예언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내용은 비현실적이고 허황한 내용으로 보일 수 있으나 진정한 믿음이란 이러한 차원에까지 따라가 보이는 마음과 행동이라는 것이다. 어느 누구나 일상의 확실한 것들은 믿기에 쉬운 일이다. 위의 인용 설화를 볼 때 이것은 진정한 믿음의 깊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들을 접하고 보일 수 있는 믿음이 상제가 말하려는 믿음의 본질임을 위의 「여동빈의 빗」 이야기에서 엿 볼 수 있는 것이다.

여동빈의 설화를 통해 강조되고 있는 믿음은 「너희들이 믿음을 나에게 주어야 나의 믿음을 받으리라」(교법 1장 5절) 고 한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믿음이란 어떠한 예언에 대해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보이는 마음과 행동에서 믿음의 본질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한편 여동빈 설화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믿음의 부분은 물질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빗 하나에 천냥」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허황되며 여기에는 천냥이라는 물질(物質)에 대한 인간 마음의 시험이 들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허황된 말이나 만약 빗 값이 싸다면, 믿음의 차원과 관계없이 그 빗을 사서 믿음이 없이도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빛의 값이 천냥이므로 진정한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다. 물질적 문제와 함께 또 그 빛으로 나타날 내용들도 황당무계해서 더 더욱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상제는 물질을 뛰어 넘어 믿음을 보이기가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부귀한 자는 자만 자족하여 그 명리를 돈우기에 마음을 쏟아 탄 생각을 머금지 아니하나니 어느 겨를에 나에게 생각이 미치리오. 오직 빈궁한 자라야 제 신세를 제가 생각하여 도성 덕립을 하루 속히 기다리며 운수가 조아들 때마다 나를 생각하리니 그들이 내 사람이니라.(교법 2장 8절)

믿음을 주제로 한 설화로 다음의 「십년 머슴 이야기」를 들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가져야 될 믿음의 깊이를 보여주는 내용이 된다.

보라 선술을 얻고자 십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그의 성의로 하늘에 올림을 받은 머슴을. 그는 선술을 배우고자 스승을 찾았으되 그 스승은 선술을 가르치기 전에 너의 성의를 보이라고 요구하니라. 그 머슴이 십년 동안의 진심갈력(盡心竭力)을 다한 농사 끝에야 스승은 머슴을 연못가에 데리고 가서 “물위에 뻗은 버드나무 가지에 올라가서 물위에 뛰어내리라. 그러면 선술에 통하리라”고 일러주었도다. 머슴은 믿고 나뭇가지에 올라 뛰어내리니 뜻밖에도 오색 구름이 모이고 선악이 울리면서 찬란한 보연이 머슴을 태우고 천상으로 올라가니라.(예시 83절)

위의 이야기는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1. 머슴이 선술을 배우고자 스승을 찾음.
2. 스승은 선술을 배우기 전에 먼저 성의를 보이라고 함.
3. 십년이 지난 어느날 스승은 선술을 가르치지 않고 연못가로 데리고 감
4. 스승은 머슴에게 버드나무 가지위에 올라가서 물위로 뛰어내리면 선술에 통한다고 함.
5. 머슴은 스승의 말을 믿고 물위로 뛰어내림
6. 이때 찬란한 보연이 머슴을 태우고 천상으로 올라감.

믿음과 관련 머슴이 물위에 뛰어내려야 한다는 내용은 머슴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이 부분은 믿음의 차원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머슴이 십년 동안의 머슴살이 끝에 버드나

무가지 위에서 물위로 뛰어 내린 줄거리는 머슴이 간직한 믿음의 깊이를 잘 보여준다. 십 년 동안의 머슴살이는 그 기간이 머슴의 정성과 함께 스승의 말에 대한 머슴의 믿음이 얼마나 깊고 변함없었는가를 말해준다. 이 십년간의 기간은 스승이 선술(仙術)을 배우는데 있어 마음을 닦는 기간으로 제시한 수행의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선술에 통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고 선술을 가르쳐줄 스승의 말을 변함없이 믿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십 년간의 정성과 진심갈력(盡心竭力)의 믿음이 지난 후에 스승이 요구한 믿음이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상제가 종도들에게 전하려는 믿음의 깊이가 어떠한가를 상징적으로 잘 말해 주고 있다. 십 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의 각고의 노력이 끝나고 이제 선술을 배우게 될 줄 알았던 머슴에게 제시된 화두(話頭)는, 버드나무에 올라가 연못에 뛰어 내리는 일이 선술에 통하는 조건이 된다는 것으로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이 선술을 배우게 되는 요건으로 머슴에게 다가온 것이다. 여기에는 이 이야기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스승의 말에 대한 믿음의 차원이 최종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 놓을 수 있는 스승에 대한 믿음이 결국 선술에 통하게 된다는 것이 이야기의クライ막스이다. 십년간의 머슴살이는 죽음까지 뛰어넘은 믿음을 이루게 하는 과정이었고 인간의 정성을 알아보는 시험의 기간이 된 것이다.

이러한 죽음의 차원까지도 뛰어 넘는 믿음의 깊이는, 상제가 화천하며 종도들에게 역설한 상제에 대한 믿음으로 제시되어 인간이 보여야 될 믿음의 차원을 더 하고 있다. 상제는 화천(化天)하며, 화천은 천지공사를 완성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이라고 밝히고 다시 출세할 터이니 그때까지 믿고 수행을 잘 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여기에는 상제의 화천의 문제가 종도들에게 다가오며 그것을 종도들이 어떻게 잘 극복하면서, 믿음을 변치 않고 간직하느냐의 문제가 대두된다. 달리 보면 종도들에게는 스승으로 모셨던 상제의 화천이란 스승의 화천이란 점으로 볼 때 앞의 십년 머슴이 자신의 죽음을 뛰어넘는 신의를 보인 차원의 믿음과 비교될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도들이 스승

인 상제가 없는 상황하에서 상제의 출세를 믿고 십 년 머슴이 보였던 믿음을 상제의 출세 때까지 간직해 나가는 일은 한 차원 높게 믿음의 깊이가 수행적 의미로 종도들에게 다가온 것이다.

또한 그 이면에는 상제가 우주적 질서의 조정을 위해 화천을 하였지만 여기에는 믿음의 깊이를 시험하는 과정이 함께 내면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상제의 선술에 통하기 위해서 종도들이 보여야될 믿음의 깊이가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접할 수 없는 화천한 상제에 대해 보이는 신념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절대적 신념의 발현이 된다 하겠다. 주지의 사실로 이러한 부분은 상제 화천후 나타난 종도들의 대립과 갈등, 증산교단의 분열상을 통해 현실적 의미로 드러난 바 있다.

화천에 있어 우리는 인격화 된 신의 행적을 보고 믿게 되고 다시 그 인격신이 천상 신의 자리로 등극하게 된 현실속에서 권화(權化)된 모습의 인격으로서 보여 주었던 상제의 권능을 계속 간직하는 믿음으로의 전환을 보게 된다. 이제 상제에 대한 믿음은 상제 자신이 인격신으로서 들려주었던 구천과 강세의 이유를 간직한 채 인간들에게 다시 구천의 신으로서 강세에 대한 대망이 아닌 완성된 세계를 이를 출세의 대망(大望) 신앙으로 형성되게 된다. 이제 인간 세상에는 출세에 대한 대망과 믿음이 새로운 믿음의 요소를 형성시키며 「십 년 머슴 이야기」에서 머슴이 버드나무가지에서 연못으로 뛰어 내려 선술에 통하였던 극적인 순간의 믿음과 같은 신행(新行)이 요구되는 현실적 상황을 상제의 종도들은 접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정제되고 고도화 된 자기 수행의 진면모가 표출됨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신앙 대상에 대한 믿음이 종도들의 과거의 종교 경험과 이어지며 안팎의 시련과 부딪히는 가운데 좀 더 깊이 있는 수행의 세계를 열어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을 다른 『전경(典經)』 구절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믿음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외부적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상태임을 아래에서 찾을 수 있다.

공우는 종도들이 모두 상투를 틀고 있는데 자신이 삭발하였기에 그들과

싸이기 어려우므로 불안하게 생각한 나머지 머리를 길러 솔잎 상투에 갓 망건을 쓰고 다니다가 金溝를 지나던 어느날 일진회의 전 동지 십여 명을 만나 그들의 조소를 받고 머리를 깎여 두어달 동안 바깥 출입을 금하고 다시 머리를 기르는 중이었던다. 돌연히 상제께서 찾아오셔서 한 동안 출입하지 않는 까닭을 물으시니 공우가 사실 그대로 아뢰이니라. 상제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오직 마음을 불 뿐이로다. 머리와 무슨 상관 하리요.” 이 말씀을 하시고 공우를 데리시고 구릿골로 떠나셨도다.(교법 2장 10절)

이 마음은 일심(一心)으로 귀착되며 일심은 신조(信條)의 사강령(四綱領)중 신(信)에 대한 정의에서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다.

한 마음을 정한 바엔 이익(利益)과 손해(損害)와 사(邪)와 정(正)과 편벽(偏僻)과 의지(依支)로써 바꾸어 고치고 변하여 옮기며 어긋나 차이가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하며 하나를 둘이라 않고 셋을 셋이라 않고 저것을 이것이라 않고 앞을 뒤라 안하며 만고(萬古)를 통(通)하되 사시(四時)와 주야(晝夜)의 어김이 없는 것과 같이 하고 만겁(萬劫)을 경과(經過)하되 강하(江河)와 산악(山岳)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이 하고 기약(期約)이 있어 이르는 것과 같이 하고 한도(限度)가 있어 정(定)한 것과 같이 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며 정성(精誠)하고 또 정성(精誠)하여 기대(企待)한 바 목적(目的)에 도달(到達)케 하는 것을 신(信)이란 한다.(『대순진리회 요람』 16-17면)

믿음과 인간 복록의 관계 외에 반대로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했을 때의 결과를 『믿는 자를 손가락으로 세어 꼽았으되 그 자가 배신하여 손가락을 펼 때에는 살아나지 못하리라』(교법 2장 21절)고 밝힘으로써 믿음의 일관성과 일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아래의 「최풍헌과 류훈장」의 이야기는 인간 믿음의 깊이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말해 주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특히 상제의 화천(化天)과 출세(出世)에 대한 신심(信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하루는 종도들에게 지난 날의 일을 밝히시니라. “최풍헌(崔風憲)이라는 고흥(高興) 사람은 류훈장(柳訓長)의 하인인데 늘 술에 취해 있는 사람과 같이 그 언행이 거칠으나 일 처리에 남보다 뛰어난지라 훈장은 속으로 그 일꾼을 아꼈도다. 훈장은 왜군이 침입한다는 소문에 민심이 흉악해지는 터에 피난할 길을 그에게 부탁하였으되 풍헌은 수차 거절하다가 주인의 성의에 이기지 못하여 가산을 팔아서 나에게 맡길 수

있나이까 고 물었느니라. 류훈장이 기꺼이 응락하고 가산을 팔아서 그에게 맡겼도다. 풍헌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술을 마시며 방탕하여도 류훈장은 아예 모르는 체 하더니 하루는 최풍헌이 죽었다는 부고를 받고 뜻밖의 일로 크게 낙담하면서 풍헌의 집에 가서 보니 초상이난지라. 그는 하는 수 없이 그의 아들을 위로하고 혹 유언이나 없었더냐고 물으니 그 아들이 "류훈장에게 통지하여 그 가족들에게 복을 입혀 상여를 따라서 나를 지리산(智異山) 아무 곳에 장사하게 하라"고 전하니라. 이 유언을 듣고 류훈장은 풍헌을 크게 믿었던 터이므로 집에 돌아와서 가족에게 의논하였는데 다만 큰 아들만이 아버지의 말씀을 좇는 도다. 사흘이 지나 모두들 운상하여 지리산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산상에서 상여를 버리고 이곳으로 빨리 오르라는 소리가 들리는지라. 모두 그 쪽을 바라보니 최풍헌이라. 모두들 반겨 쫓아 올라가니 그 곳의 집 한 채에 풍부한 식량이 마련되어 있느니라. 다시 최풍헌을 따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가 가리키는 대로 내려다 보니 사방이 불바다를 이루고 있는지라. 그 까닭을 물으니 그는 왜병이 침입하여 마을마다 불을 지른 것이라" 이르도다. (공사 3장 17절)

위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류훈장의 하인 최풍헌은 언행이 거칠으나 일처리에 능숙하다.
2. 류훈장은 왜군침입에 대한 피난을 부탁했으나 최풍헌이 거절함.
3. 류훈장의 계속된 성의에 최풍헌이 가산을 팔아 맡기라고 하니 류훈장이 그의 말대로 했다.
4. 최풍헌은 류훈장이 맡긴 돈으로 날마다 술을 마시며 방탕하게 생활하였으나 류훈장은 그 일을 모르는 체 그냥 있었다.
5. 어느 날 류훈장은 최풍헌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됨
6. 류훈장이 상가를 찾으니 최풍헌이 「류훈장에게 통지하여 그 가족들에게 복을 입혀 상여를 따라서 나를 智異山 아무 곳에 장사하게 하라」는 유언을 그의 아들로부터 전해들음.
7. 류훈장은 유언을 믿고 상여를 따라 장지인 지리산으로 감.
8. 이때 산상에서 죽었던 최풍헌이 갑자기 나타나 상여를 버리고 산상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그 곳에 가보니 최풍헌이 식량을 준비하고 기다림.
9. 산상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니 왜병이 침입해서 마을이 불타고 있음.

이상의 내용은 류훈장이 최풍헌을 변치 않고 믿어 왜병의 침입으로부터 피난했다는 것으로 믿음의 정도가 어떠한가를 보여준다. 위의 이야기에 나타나는 믿음의 정도는 신분 계급이 높은 류훈장이 하인에게 임진란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부탁했다는 점과 류훈장이 최풍헌이 요구한 조건인 가산을 맡겼다는 사실 그리고 류훈장이 가산을 탕진하고 죽은 최풍

헌을 끝까지 믿었다는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다.

신분 계급에 있어서 볼 때 당시 반상의 구별하의 제도 속에서 천인 계층인 하인을 믿고 어떠한 일을 맡긴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인데, 류훈장은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피난할 방법을 부탁한 것은 믿음에 있어서 사회 계층적 차별을 극복한 자세를 보여준다.

또한 신분적 차별을 극복하는 것과 함께 더 어려운 조건이 제시되는데 그것이 가산을 맡겨 보라는 것이다. 신분적 차별을 뒤로 하더라도 가산(家産)을 맡기라는 물질적 요구에 인간은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류훈장이 양반 신분으로서 확실히 피난의 길을 찾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하인이 가산까지 맡기라는 요구는 수공하기 어려운 것이나 류훈장이 최풍헌에게 가산을 맡긴 것은 최풍헌을 믿는 마음이 철저했음을 보여준다. 이 부분은 여동빈 설화에서 빗 값이 천냥이라고 한 부분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다음으로 최풍헌이 류훈장이 맡긴 돈으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다. 최풍헌은 남이 보았을 때 피난의 준비는 하지 않고 그 돈으로 매일 술을 마시고 취해 지냈다는 것이 류훈장의 최풍헌에 대한 믿음에 있어 다시 한번 갈등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렇게 소일(消日)하던 최풍헌이 죽었다는 부고는 류훈장에게 모든 일이 허사로 돌아간 극도의 실망과 후회를 일으키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류훈장은 최풍헌의 죽음뒤의 일까지도 믿는 생사(生死)를 뛰어넘는 초월적(超越的) 신념을 나타내게 된다. 최풍헌의 상여를 따라 오라는 최후의 말까지 믿었던 류훈장은 상대의 죽음까지도 극복해 생사를 초탈한 믿음을 보인 것이다. 결국 이러한 믿음의 차원이 류훈장을 사지(死地)에서 벗어나 살게 하는 요건이 되었다. 신분적 차별을 극복한 믿음으로부터 물질적 차원을 넘어서 보인 믿음과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고 죽은 상대를 원망하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을 간직한 류훈장의 이야기는 믿음의 깊이가 어떠한가 하는가를 잘 말해 주는 좋은 예이다. 최풍헌이 다시 살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의 상여를 따르는 자를 구하고 식량등 모든 물품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은 최풍헌이 인간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일부러 거짓으로 행동했음을 보여

준다.

위의 이야기에서 신분, 물질, 최풍헌의 방탕함은 상제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과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모든 가르침이 새로 출현할 때 그것을 대중들이 쉽게 가까이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상제를 광인으로 잘못 본 일이 위의 최풍헌이 방탕하게 류훈장의 가산을 쓰고 다닌 것에 비유되고 있다. 당시 사회 상황하에서 상제의 가르침은 일반 대중들에게 희망을 주는 혁신적 사상이었지만 한편 허황한 말로 들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다. 그러나 상제는 이것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상임을 실생활 속에서 보여주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일 것을 가르쳤다.

상제에 대해 신분적으로 상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은 자신의 신분을 뒤로하고 상제에 대해 믿음을 보이는 것이다. 상제는 때로 자신을 따르려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부의 세계를 뛰어 넘는 진실한 믿음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상제의 수많은 행적은 당시 사람들에게 상제를 광인(狂人)으로 보이게 하기도 하였다. 상제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긴 종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 위의 이야기에서 최풍헌이 방탕하게 생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상제가 방탕하게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눈에 비추어진 최풍헌의 모습이 천지공사를 하는 상제에 대해 광인으로 보는 주변인들의 그릇된 시각일 수 있다.

나아가 새로운 세상과 운수에 대한 소망으로 상제를 믿고 따르던 종도들이 상제의 화천을 맞이하게 된 것은 최풍헌의 죽음과 비유된다. 상제가 화천을 하더라도 변함없이 믿고 따르라는 것과 다시 출세(出世) 즉 세상에 다시 온다고 한 것은 최풍헌이 유언을 남기고 그것을 따른 사람들은 살길을 찾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화난을 당한 이야기와 대비된다. 죽었다던 최풍헌이 다시 살아나 살길을 열어준 것은 그의 류훈장에 대한 약속을 지킨 것이며 상제의 미래 어느 시점에서의 출세와 그와 함께 이루어질 상제의 천지공사에 의한 이상세계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대중들에게 새로운 유토피아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인내의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위에서 언급한 최풍헌 이야기와 십년 머슴 이야기는 모두 죽음의 상황을

믿음에 대한 하나의 시험대로 설정하고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 점에서 십년 머슴의 경우는 신앙인이 보이는 믿음의 차원이고 최풍헌의 경우는 구원을 해 줄 최풍헌의 죽음과 관련되어 신앙인이 가져야 될 자세를 좀 더 강조하고 있다.

상제의 화전은 믿음의 양상이 새로이 변화되게 하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 화전과 함께 미래 어느 시점에 상제가 다시 세상에 올 것이라는 출세에 대한 믿음이 상제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제시된다. 출세에 대한 믿음을 통해 상제를 신앙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차원으로 들어감을 볼 수 있다. 상제는 「속담에 “이제보니 수원 나그네라 하나니 누구인 줄 모르고 대하다가 다시 보고 낮이 익고 아는 사람이드라는 뜻이니 나를 잘 익혀두라”고 말씀하셨도다」(행록 5장 30절) 라고 하여 암시적으로 화전을 예언하고 출세를 믿고 마음을 바로해 신앙적 자세를 잘 갖추어 줄 것을 언급하였다.

김 자현은 六月 어느날 상제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고 다짐하시기에 “지성으로 믿사오며 고부화액 때에도 상제를 따랐나이다”고 믿음을 표명하였도다. 그리고 상제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장차 어디로 가리니 내가 없다고 핑계하여 잘 믿지 않는 자는 내가 다 잊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자현은 “제가 모시고 따라가겠나이다”고 여쭙니 상제께서 다시 “어느 누구도 능히 따르지 못할지니라. 내가 가서 일을 행하고 돌아오리니 그 때까지 믿고 기다리라. 만일 나의 그늘을 떠나면 죽을지니라”고 이르셨도다. (행록 5장 19절)

상제께서 모든 종도를 꿰어앉히고 “나를 믿느냐”고 다짐하시는지라. 종도들이 믿는다고 아뢰니 상제께서 다시 “내가 죽어도 나를 따르겠느냐”고 물으시는지라. 종도들이 그래도 따르겠나이다고 맹세하니 또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궁벽한 곳에 숨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나를 찾겠느냐”고 다구치시니 역시 종도들이 찾겠다고 말하는지라. 상제께서 “그리 못하나니라. 내가 너희를 찾을 것이오. 너희들은 나를 찾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행록 5장 22절)

위의 인용문은 계속되는 상제의 믿음에 대한 질문과 함께 「내가 죽어도 나를 따르겠느냐」 하여 화전에 대한 암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주목되는 것은 「내가 가서 일을 행하고 돌아오리니 그 때까지 믿고 기다리라」고 한 부분에서 어느 시점에서의 출세를 밝히고 믿음을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종도들의 믿음을 강조하며 「나의 그늘을 떠나면 죽을 지니라」고 하여 믿음을 저버릴 경우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강한 어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 믿음에 대한 최종적 판단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제는 동학의 가사를 인용해 종도들을 가르쳤는데 그 내용 중 일부는 상제에 대한 출세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 수운 가사는 최수운 자신이 동학의 내용을 나타낸 것이나 아래의 예문들은 상제와 관련된 미래의 상황을 담고 있는데, 이점은 상제가 최수운에게 계시(啓示)를 내리고 그로 인해 수운이 동학을 창도했다는 사실과 관련해 유추해 볼 수 있다.

水雲가사에 “발동 말고 수도하소. 때 있으면 다시 오리라.” 하였으니 잘 알아 두라 하셨도다(행록 5장 17절).

水雲 가사에 “亂法亂道하는 사람 날 불 낮이 무엇인가”라 하였으니 삼가 죄 짓지 말지니라.(교법 1장 33절)

너희들은 이제는 이렇듯 나에게 추종하나 후일에는 눈을 떠서 바로 보지 못하리니 마음을 바로하고 덕을 닦기를 힘쓰라. 동학가사에 “많고 많은 저 사람에게 어떤 사람 저러하고 어떤 사람 그러한가”와 같이 탄식들이 저절로 나오리라.(교법 2장 9절)

상제의 출세를 믿고 그때까지 동요(動搖)없이 잘 수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위의 수운가사 인용구절에서 「발동(發動)하지 말라, 난법난도(亂法亂道)하여 죄 짓지 말라, 마음을 바로 해서 덕을 닦기에 힘쓰라」는 경계의 말들은 상제의 화천과 함께 있을 수 있는 혼란을 예시하고 법도를 잘 지켜 수행해 나가야 상제의 출세와 함께 있게 될 이상세계인 후천선경(後天仙境)의 새 운수(運數)를 누릴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시 한번 동학 관련 가사를 통해서 상제의 화천후 상제를 믿는 마음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어느날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너희들은 손에 살릴 생자를 쥐고 다니니 득의지추(得意之秋)가 아니냐 마음을 게을리 말지어다. 삼천(三遷)이라야 일이 이루어지느니라.”고 이르셨도다.(예시 87절)

이제 너희들이 지금은 고생이 있을지라도 내가 단식하여 식욕을 붙여주고 여름에는 겹옷을 겨울에는 홑옷을 입어 뒷날 빈궁에 빠진 중생으로

하여금 옷을 얻게 함이니 고생을 참을지어다. 장차 천하 만국을 주유하며 중생을 가르칠 때 그 영화는 비길데가 없으리라.(예시 82절)

상제는 믿음에 의해 있게 되는 개개인의 운수를 「나의 일은 남이 죽을 때 잘 살자는 일이요. 남이 잘 살 때에 영화와 복록을 누리자는 일이니라」(교법 1장 6절)고 하여 차별화하고, 삼천(三遷)의 때까지 사람을 구제하고 어려움을 잘 극복해 상제의 가르침에 따라야 후일 영화와 복록을 받게 됨을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믿음의 견지(堅持)하에 있게 되는 결과인 것이다.

V. 結 論

이 글은 삼요諦(三要諦)인 성경신을 살펴본 글이다. 정성의 의미는 천지 성경신과 복록수명 성경신이라는 구절에 입각해, 중용에 나타나는 성(誠)에 대한 내용과의 연관성속에서 고찰한 것이다. 이제 정성에 대해 일관된 논리의 결론보다는 정성에 대해 언급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한편 천지 성경신(天地 誠敬信)은 우주를 운행시키는 신적 존재와 연관지어 설명되었으며, 이 신적 존재는 복록수명 성경신(福祿壽命 誠敬信)에서 인간의 성경신에 따라 복록과 수명이 결정된다는 측면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의 인간에 대한 평가는 인간의 성심에 따라 작용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도통과 운수라는 점을 생각할 때 고견원려(高見遠慮)에 따라 지혜를 간직한 경지가 중요한 의미로 대두된다.

『중용』에 나타나는 성(誠)에 대한 풀이는 절대적 차원으로서의 정성에 대한 인간 노력의 부단한 경주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용에서의 「성자 천도(誠者 天道)」와 대순사상에서의 『천지 성경신(天地 誠敬信)』과의 유기적 관련성과 좀더 확장된 전 우주적 총체성속에서 천지공사로 열려지는 새세계에 대한 면모를 내포한 것이다.

경에 대한 부분에서는 『전경(典經)』에 나타나는 상제의 권능과 그에 따

르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인간의 외경심을 살펴보고 그것이 상제에 대한 신앙심과 일련의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찾아보았다.

상제의 초월성은 신도(神道)의 원리하에 나타난 권능의 발현이다. 상제는 신도에 따라 삼계대권(三界大權)을 발휘하여 천지공사를 이루어 나갔으며 이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생민들을 구제하였다. 상제를 따르던 종도들과 일반 민중들은 상제의 삼계대권으로 표현된 초월성을 보고 느끼며 그들의 외경심(畏敬心)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외경심은 신조(信條)의 삼요諦(三要諦)에 속하는 경(敬)에 있어 신앙심 형성과 수행에 일련의 규범적 모델로 작용할 수 있다. 상제의 초월성은 자연현상을 조절하는 면으로 나타나 비, 뇌성, 바람, 태양 등을 임의대로 다루었는데 이를 목격한 종도의 마음에는 외경심과 그에 따른 신앙이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은 신앙심은 다양한 인간사의 일들을 주재 관장하는 상제의 권능을 접하며 민중들에게 형성되어 그들이 상제를 추종하게 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일상사에서 나타난 상제의 권능이 인간적 차원에서는 외경의 대상이었고 신앙의 기틀은 이러한 신비감에서 뿌리깊게 당시 조선 사회에 퍼져나갔던 것이다.

신(信)에 대한 내용은 『전경』 소재 설화의 내용 속에 비유되어 있는 믿음의 의미를 살펴았으며, 비유로 암시된 문학 작품의 인용을 통한 종도들에 대한 감화는 일면 더 큰 심리적 반향을 일으키게 하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이점이 상제의 이야기 인용에 나타나고 있음을 엿 볼 수 있다.

여동빈의 빛 이야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믿음의 본질은 믿음이란 선행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동빈 설화에서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부분은 물질의 문제도 내재되어 있다. 빛 하나에 천냥이라는 것이 또한 허황되며 여기에는 천냥이라는 물질에 대한 인간 마음의 시험이 들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십년 머슴 이야기에서 십년간의 기간은 스승이 선술을 배우는데 있어 마음을 닦는 기간으로 제시한 수행의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스승에 대한 믿음이 결국 선술에 통하게 된다는 것이 이야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십년간의 머슴살이는 인간의 정성을 알아보는 시험의 기간이라 할 수 있다. 상제의 선술에 통하기 위해서 종도들이 보여야 될 믿음의 깊이가 일상속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현실에서는 접할 수 없

는 화천한 상제에 대해 보이는 신념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절대적 신념의 발현이 된다 하겠다. 믿음의 본질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그것은 일심(一心)으로 귀착되며 만사(萬事)를 이루게 하는 마음의 요소라 볼 수 있다. 믿어야 될 요체는 상제의 말로 귀결되어 그 말이 약이 되고 병을 치유하며 죄를 없애주는 신비스러운 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최풍헌의 이야기는 류훈장이 최풍헌을 변치 않고 믿어 왜병의 침입으로부터 피난했다는 것으로 믿음의 차원에 있어 신분적 차별을 극복한 믿음으로부터 물질적 차원을 넘어서 보인 믿음과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고 죽은 상대를 원망하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을 간직해 살아날 수 있었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세상과 운수에 대한 소망으로 상제를 믿고 따르던 종도들이 상제의 화천을 맞이하게 된 것은 최풍헌의 죽음과 비유된다. 죽었다던 최풍헌이 다시 살아나 살길을 열어준 것은 그의 류훈장에 대한 약속을 지킨 것이며 상제의 미래 어느 시점에서의 출세와 그와 함께 이루어질 상제의 천지공사에 의한 이상세계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대중들에게 새로운 유토피아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인내의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상제가 보여준 권능과 예지가 종도들로 하여금 외경(畏敬)을 일으키게 하였고 이것은 믿음의 차원으로 발전하여, 종도들의 입장에서는 절대적 존재로서의 스승을 공경하는 종교적 체험을 하게 된다. 상제의 화천(化天)은 믿음의 양상이 새로이 변화되게 하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 출세에 대한 믿음을 통해 상제를 신앙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차원인 것이다.

【참고문헌】

大巡眞理會 敎務部(1969), 『大巡眞理會 要覽』, 서울: 大巡眞理會 出版部

大巡眞理會 敎務部(1974), 『典經』, 서울: 大巡眞理會 出版部

商務印書館 編輯部(1989), 『辭源』, 台北: 遠流出版公司

高南植(1999), 「先天 天觀과 상제의 超越性」, 『大巡思想論叢』 제 8집, 大巡
思想學術院

----- (1999), 「誠과 인간의 價値創造」, 『大巡思想論叢』 제 9집, 大巡思想
學術院

----- (2000), 「上帝 超越性에 대한 畏敬心の 양상」, 『大巡思想論叢』 제10
집, 大巡思想學術院

金 鐸(1995), 『甌山 姜一淳의 公事思想 研究』 성남: 정신문화연구원 박사
학위 논문

諸橋徹次(1984), 『大漢和辭典』, 東京: 大修館書店

黃善明(1990), 『宗敎學概論』, 서울: 종로서적 출판사